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JUN 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53 1983년 6월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June 8,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치마·저고리 토론토 누비다"

로터리대회에 한국서 200명
100개국서 1만5천명 몰려

자유당시절 공보장관을 지낸 오재경씨, 작곡가 금수현씨등 1백이 명의 한국로타리클럽 회원들이 토론토서 열리는 국제로타리회의 참석차 부부동반으로 왔다.

한국회원들은 한복차림의 부인을 대부분 동반, 회의장및 숙소인 로열·욕호텔, 메이플·리프·가든, 라마다·인(다운타운)등은 물론, 블루어 한인상가에 치마저고리의 물결을 일으켰다.

제74차 로타리정기회의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기독교방송사장을 지냈고 3개월전부터 동아일보사장으로 있는 오씨는 이대음대학장을 지낸 부인 신재덕여사를 동반,

토론토에서 자선공연을 마친 소프라노 김자경여사(동기생), 작곡가 안병원교수("우리의 소원" 등을 작곡, 토론토거주), 소프라노 이주연여사(교포)등과 지난 주말 만났으며 5일에는 한인장로교회 일요예배에 참석했다. 작곡가 금씨는 한양로타리클럽회장이며 한국의 유일한 음악잡지 「월간음악」발행인이다.

캐나다및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낸 나라는 일본의 1,500명이며,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의 5백명등 총 100여개국에서 1만5천명이 몰려와 토론토가 「로타리안」으로 붐비었다.

토론토시는 관광산업을 위해 이들에게 특별교통편을 마련하고 특별장식을 하는등 신경을 썼다.

이번 회의에서는 1년임기를 마친 히로시·무카사(일본정신신경과의사) 국제회장 후임으로 멕시코의 칼로스·칸세코박사를 선출했고 오재경씨(재임)등 15명의 이사를 뽑았다.

◆로터리대회 개회식에서 태극기가 입장하고 있다. (5일 메이플·리프·가든)

기술자 1,500명 훈련
한·일 연례교환계획일환

(서울6일=연합) 한국정부는 84년부터 88년까지 매년 1,500명의 기술자들을 일본과 교환키로 했다.

한국에 불리한 한·일 양국의 무역수지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장기조치의 하나인 이 계획은 지난달 도꾜에서 열린 제16차 한·일무역쌍무협상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교환계획에 따르면 매년 1천명의 일본 기계설비및 난방시설 기술자들이 한국을 방문, 1개월간 한국기술자들을 훈련시키며, 500명의 한국 용접공, 주조공들이 6개월내지 1년의 훈련기간을 갖기위해 일본으로 파견될 계획이다.

이 [illegible] 교환계획에 드는 경비는 양국정부가 충당한다.

주택착공건수 증가
이자율·정부지원금 영향

연방정부가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3천달러를 타기 위해 몰려드는 희망자들과, 그간 많이 떨어진 낮은 이자율때문에 금년 5월의 메트로지역 주택건설 착공건수가 169%나 뛰었다고 6일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밝혔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171%나 오른 주택건축붐은 5월5일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끝나고 또한 7,8월 여름철이 되면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고 CMHC통계국장이 밝혔다.

로타리(ROTARY)클럽이란?
세계 제2의 봉사클럽
"남을 위한 봉사"가 모토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두번째로 많은 회원을 가진 로타리클럽은 157개국, 2만여 클럽에 91만명의 회원을 가졌다.

가장 큰 라이온스클럽은 회원이 130만명이다.

북미최초의 로타리클럽은 1905년 시카고에서 변호사출신인 포울·해리스씨가 조직했으며 1910년 위니펙에 클럽이 조직되면서 국제화, 토론토에는 1913년에 28명의 회원이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는 506개 클럽에 2만3천명의 회원을 가졌고 토론토에는 64개 클럽과 3천여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다.

남자만 회원이 되는 전통은 여성들의 비난을 받았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배제된다. 이같은 사례는 비슷한 봉사자선단체인 라이온스클럽, 와이즈맨클럽과 마찬가지이다.

로타리클럽의 모토는 "나보다 남을 위한 봉사(Service Above Self)와 "최고의 봉사자는 가장 큰 덕을 본다(H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이다.

회원은 친교와 각기의 사회적기능을 위해 협조한다. 회원들이 내는 기금은 연간 5억달러에 이르며 연간 2천만달러는 국제로타리재단의 장학기금으로 비축, 세계의 단일크럽으로는 휴스턴의 900명이 가장 크고, 토론토의 클럽은 400명으로 영연방국중에서 가장 크다.

회원은 구두로 선서를 하지 않는것이 특징이며 소속클럽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만약 한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옮길 때는 과거경력은 무효로 되어 신입회원으로 간주한다. 중류이상의 직업인이며, 한 클럽에 같은 직종종사자가 2명이상 있을 수 없다.

회비는 연20달러이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타리회원은 알버트·슈바이처, 스웨덴의 구스타프왕, 제리·포드 전 미국대통령, 닉슨 전 대통령, 작곡가 시벨리우스등이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작년도 로타리클럽이 제정한 상을 수상했다.

토론토한인사회에는 한인들만이 가입하는 와이즈맨클럽, 라이온스클럽이 있으나 한인로타리클럽은 조직되지 않았다.

조·클락 선두유지
보수당후보 인기, 2위는 멀로니

연방 보수당 당수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조·클락 보수당당수가 인기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몬트리얼 실업인인 브라이언·멀로니가 2위로서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보수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갤럽여론조사가 6일 밝혔다.

갤럽회사가 조사, 글로브·앤드·메일지에 제공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펀들랜드의 존·크로스비의원이 3위를 달리고 있는것 이외에 다른 어떤 후보도 뚜렷하게 부상되고 있지 않다.

이 조사에 따르면 클락이 당수일때 보다 멀[illegible] 트루도나 존·터너등 자유당 당수와 싸우는 데 약간 유리하다고 보는 대의원도 있었다.

동조사는 또한 1차투표에서 클락이 36.8%, 멀로니가 28%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사동정〉

김운영편집국장은 6일부터 온타리오주정부가 소수민족신문인들을 위해 마련한 온타리오주관광시찰 여행에 참석, 썬더베이등 북부 온타리오주를 여행중이다. 김국장은 13일 귀임한다.

× × ×

[illegible] 송광호 광고국장은 6일 귀사했다.

◆로터리대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들. 왼쪽에는 오재경·신재덕씨 부부.

은하 보석
ROLEX
대리점
란콤화장품
오메가시계 45% ~ 50% OFF
토론토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허가소지업체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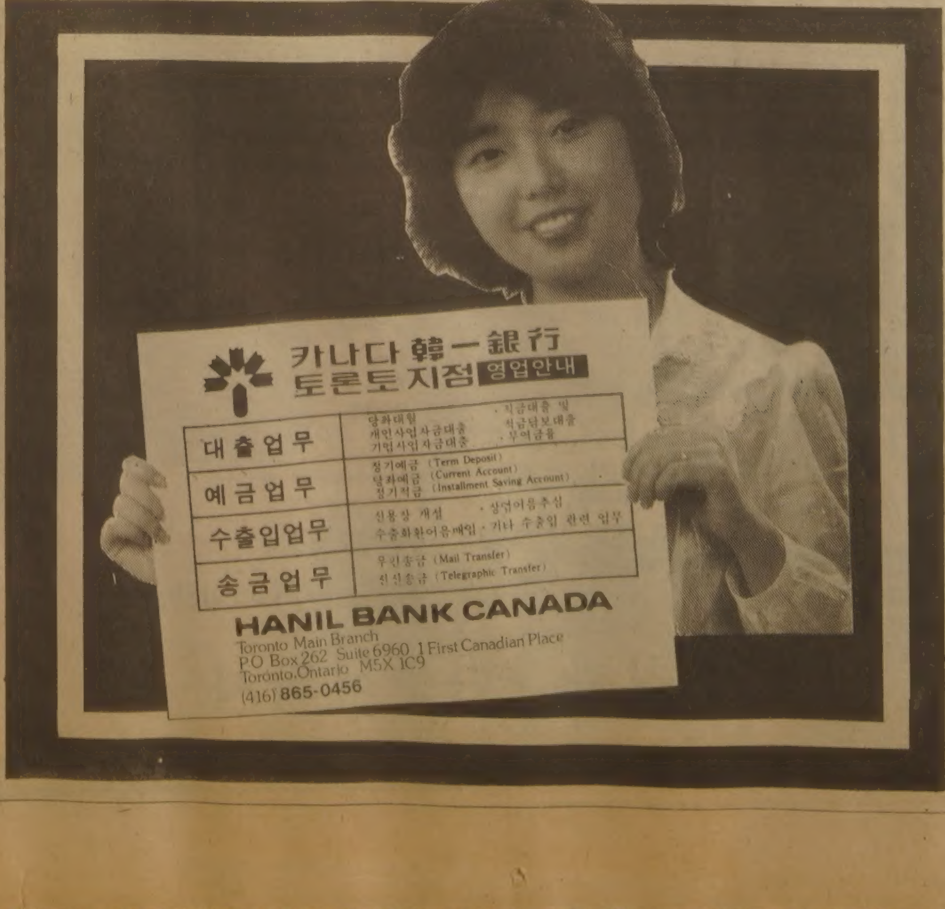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B.Com., C.A.
Chartered Accountant · Comptable Agre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 5147



국제탁구대회
Butterfly TABLE TENNIS
모국선수대거출전
중국, 미국, 서독, 그리고 캐나다 선수출전.
□일시 : •6월15일(수) 오후6시30분 $5.00
•6월16일(목) 오후6시30분 $5.00
•6월17일(금) 오후7시 $7.00
□장소 : MASSEY HALL
판매처 : 한국일보(533-2361
제일식품·고려식품·한국식품 본점
한국관·브랜든운동구점
CANADIAN TABLE TENNIS ASSOCIATION
O.T.T.A

성인잡지·창녀문제 논의

전국시장대표, 연방외무상과 면담예정

(몬톤)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과 캐나다 각시 시장의 대표가 6월중 막·맥기건 연방법무상을 만나 성인잡지, 음란필름과 거리의 창녀들을 소탕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브룬스위크의 몬톤(Moncton)에서 열린 제46차 캐나다시정부연맹 연례회의에 참석한 이글톤 시장은 성인용 음화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세관관리들이 잡지, 필름, 카셑·테잎등의 캐나다 국경반입을 막아야 하며, 비데오 카셋트 분류제도가 생겨 부모가 집으로 들여오는 카셋트의 내용이 무엇인가 확실히 구별이 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7개도시 시장은 4일 비밀회의를 갖고 그들의 도시에 만연하는 이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의 모임에는 토론토, 오타와, 해밀턴, 핼리팍스, 에드몬톤, 뱅쿠버, 몬트리얼의 시장이 합석했다.

현재 창녀들의 번성문제는 토론토는 비교적 덜하나 뱅쿠버나 캘거리등 다른 주요도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프레드릭톤의 에드워드·스캇목사(캐나다 앵글리칸교회책임자)는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장들의 의견에 동참,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모랄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5월중 약간 감소

토론토주택매매

메트로·토론토 지역의 주택 매매건수가 4월에 이어 5월중에도 전달에 비해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된 집값도 떨어졌다고 토론토 부동산위원회(Toronto Real Estate Board)가 밝혔다.

5월중 매매건수는 총 2,856건으로 4월중의 2,990건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1년전인 82년 5월보다는 50% 늘었다.

평균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돈·밸리·파웨이 동쪽 : 87,979달러.

▲더퍼린·스트릿 서쪽 : 91,937달러.

▲돈·밸리·파웨이 서쪽과 더퍼린 동쪽 리치몬드·힐 남쪽의 중앙지역 : 137,763달러.

전 부인과 두아들에 총격

30대 이혼남성, 자신도 자살

이혼한 남편이 전아내와 두아들을 총으로 쏘아 8살난 아들을 죽이고 부인과 10살난 큰아들에게 부상을 입힌지 수시간뒤 자신도 자살했다.

스카보로에 사는 시드니·제이콥스(35)씨는 지난 4일 오샤와에 있는 이혼한 부인 네스터(32)씨를 방문, 두아들 쉘돈군과 에릭군등 세가족을 모두 지하실로 모이게 한뒤 8살난 둘째아들의 이마와 부인의 얼굴에 권총을 발사했다. 총구를 다시 큰아들 쉘돈에 돌려 얼굴에 발사했으나 쉘돈군은 얼굴을 가렸던 팔만 다쳤을 뿐이다. 후에 병원에서 쉘돈군은 "아빠가 총으로 쏘기전 굳나잇 키스를 하라"고 했다고 말하고 또 총을 쏠까봐 두려워 팔을 맞은 뒤 죽은 척했다고 말했다.

시드니·제이콥스씨는 가족들에 총격을 가한뒤 자신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절명했다.

이들 부부는 2년전 이혼했다.

이웃주민들은 제이콥스씨가 사고가 있기전에도 수차례 이들 가족의 집주위를 배회하며 유리창으로 집안을 들여다 보곤 했으며, 심지어 경찰로 부터 집안에 들어가지 말도록 경고를 받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차선겸동문 그로스챔피언

연세 골프대회 24명 참가

지난 4일(토) 리치몬드·힐 골프클럽에서 열린 연세골프대회에서 차선겸씨가 우승했다.

24명이 참가, 9시30분부터 시작된 이날대회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로스 챔피언 : 차선겸

2등 : 김무호

3등 : 김은하

▲네트 챔피언 : 이영규

2등 : 남지연

3등 : 송용진

▲롱게스트 드라이브 : 박남희

▲럭키 7 : 김철수

▲모스트 어네스트 : 박충도

▲발전상 : 이형재

비지니스 소식란

양지식품 개업

토론토에 한국식품점이 또하나 생긴다.

양지식품(Sunnyside Supermarket)으로 이름 붙여진 새 식품점은 10일(금) 개업리셉션을 가진다.

안국태·안경애씨가 경영하게될 양지식품은 1738 Lawrence Ave. E.와 빅토리아·파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759-9331.

5일 서울서 개막

아마권투협회

(서울6일=연합) 국제아마추어권투협회(AIBA) 실행위원회가 25개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5일 서울에서 개막되었다.

5일간 열릴 이 대회의 중요안건은 권투기술의 향상과 안전대책등이 토의된다.

한편 동협회는 오는 11월 도미니칸공화국에서 열릴 국제청소년권투선수권대회 및 10월에 로마에서 개최되는 월드컵권투대회에 대해 최종 점검한다.

결 혼 축 하

신랑 : 신명순씨 장남 동조군.

신부 : 전동림씨 차녀 효성양.

일시 : 6월11일(토) 하오2시

장소 : 한인교회 (69 William St.)

주례 : 반병섭목사

8세의 전자 게임「팩맨」챔피언

▲샌프란시스코의 8세소년 제프리·이군은 2일 팩맨게임에서 8시간15분동안에 무려 6백13만1천9백40포인트를 기록해 상금 9만달러의 세계챔피언이 됐다. 이군이 한국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AP〉

제5계절 종교인의 해독(害毒)

김삼우(선련사 주지)

◆김삼우 스님

지금 온 세상이 대기오염과 공해문제로 시끄럽고 물질적 가치관의 팽배와 인간성의 타락은 자연계의 현상처럼 우리의 의식주변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유와 평등사상의 보급, 개방된 사회의 영향은 우리 모두를 전통적가치와 습관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여파로 우리는 지금 욕망의 확대와 개인주의의 범람, 그리고 가치의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종교인들 자신도 제외될 수 없으며 종교의 세속화와 더불어 오히려 새로운 종교가치관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모색되어지고 있다. 전환기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종교인들의 독특한 행동철학은 이와같은 종교인들 자신의 의식혁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종교인들이 지배계급으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고 만약 직업으로서 신분으로서 엘리트 의식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이는 바로 자기모순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되려면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어서 무상(無相)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종교인이다. 따라서 종교인이라고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는 해탈과 구원의 영원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교인들의 정신적 자세가 바로 서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종교인의 해독을 문제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종교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듣던 얘기가 아니다.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세상의 명예를 탐내어 지위와 학위를 날조하고 헌금을 거둬들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것은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속인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종교인들이 아는체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 자기종교와 교주를 배경으로 독선을 피우는 종교인들을 보면 그 고약한 냄새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 아집과 위선에 똘똘 말려 인간성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구제하는 가난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환경오염이 가져다 주는 외적공해와 종교인들이 끼치는 해독에서 오는 내적공해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고 건전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 지금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공해와 오염은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평화를 가르친다. 사랑과 평화는 정신적인 음식과 옷과 같아서 이것없인 우리가 살 수 없다. 종교 없인 살 수 있어도 사랑과 평화 없인 살 수 없다.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살리기 위해 사랑과 평화를 가르친다. 사랑과 평화는 지식이나 기술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데는 지혜와 보살행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이 진보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가장 잘 가르치고 실현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종교인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다음의 사항들을 반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교도를 자기같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없다면 어떻게 참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남에게 겁을 주거나 귀찮고 성가시게 굴어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자기종교에 들어오도록 해놓고 이러한 추세로 세력을 모아 남위에 군림하는 종교인을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는가. 민족차별이나 인종차별에는 열등감을 동원, 심각한 반응을 보이면서 종교차별은 조그만 양식도 없이 일삼고 있는 종교인들을 우리는 과연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임종에 있는 사람을 귀찮게 굴고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개종시키는 지극히 비인도적인 처사를 자행하는 것이 의로운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과 평화 없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십년 가까이 사귀고 있는 친구로서 Vachon이라는 미국인 신부가 있다. Montreal에서 Monchain Centre를 운영, 인디언 원주민과 소수민족 문화를 보호육성하는 「행동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분은 자기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사랑과 평화에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멸시하고 다른 종교인을 자기종교에로 개종시키는 일을 "강간과 도적질"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자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것이 사랑과 평화에 대한 길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이러한 태도로서 그는 인디언원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의 이민문화와 종교를 보호,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그는 가톨릭교구와 일체 공식관계를 버리고 모든 어려운 사람의 친구로서 일하고 있다. 우리 한국종교인들도 하루빨리 의식의 후진성과 번뇌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의 대도(大道)를 걸어갈 수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종교와 진리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고 싶다.

선련사 삼우 합장

교 민 동 정

◆장석환(시인·전 문협회장)=장가가는 동생의 결혼식 참석겸 친지 방문차 주말 서울로 향발, 약 한달간 머물고 돌아올 예정이다.

▲김종조(종합보험대리점및 부동산회사 경영)=지난 4월 공증인 자격(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을 획득, 공증업무도 취급하게 되었다. 교민들의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줄리아나·어(요한보석 선물센터 경영)=최근 663 Bloor St. W.에 선물센터(John's Jewellery & Gift Tel : 532-8365)를 차렸다. 결혼, 생일선물, 특히 이태리제 크리스탈 그라스를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도 취급할 계획이다.

▲김종욱(토론토 한인천주교회 전총회장)=오는 18일(토) 피아니스트인 장녀 진숙양을 출가시킨다. 이로써 7남2녀의 다복한 자녀중 2남1녀를 결혼시키게 되어 어버이 과업을 착실히 수행(?)중.

진숙양은 지난달 피아노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토론토 한맘성당 성가대 반주자로 8년간 수고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작

치경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9>

누가 惡魔인가 ⑩

세명의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불이야!』

누가소리쳤는지 모른다. 그 한마디는 흡사 폭탄같은 효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무서운 기세로 출입구를 향해 돌진해갔다.

『불이 났다! 빨리 문을 열어!』

마인은 무전기에다 대고 악을썼다. 불길은 삽시간에 천장까지 옮아가 무서운 기세로 번져오고 있었고 실내는 어느새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매케한 연기로 가득 차있었다. 마인은 코를 싸쥐고 눈물을 흘리며 웽을 찾았다. 그러나 너무 혼란스러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트럼펫 악사를 찾았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자 시커먼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출구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사람에 부딪쳐 그는 세번이나 바닥에 나뒹굴었다. 겨우 밖으로 나오니 거기도 수라장이 되어있었다. 미처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비상계단쪽을 이용해서 달려내려가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다급해진 경찰은 아래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에 태우고 있었다. 일단 모두 가두어가서 하나하나 조사해보기 위해서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십여명이 또 내렸다. 그중에는 악사들이 몇명 정도 끼여있었다. 경찰이 그들을 버스에 강제로 태우려고하자 악사들이 항의했다.

『우리는 클럽에서 일하는 악사들입니다. 손님이 아니라구요. 지금 다른 업소에 가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경찰은 주춤했다. 밴드마스터 라는 자가 앞으로 나서서 모든걸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 이상없나요?』

금테두른 경찰이 호텔지배인을 보고 물었다.

『네 나이트클럽 악사들입니다. 제가 보장하겠읍니다.』

朴 男 그림

뚱뚱한 지배인은 자신있게 말했다.

악사들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연행되는것을 면하고 풀려날수가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을 벗어나 구경꾼들 사이로 사라졌다.

악사 하나는 절룩거리고 있었다. 키큰 악사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와오고 있었다. 호텔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있었다. 악사 두명은 일행과 떨어져 골목으로 꺾어졌다.

『거기 서라!』

세명의 사나이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키 큰 악사는 부축하고있던 악사를 벽쪽으로 밀어젖히면서 몸을 돌렸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피스톨이 쥐려 있었다.

『제5의 사나이다!』

사나이들은 주춤하면서 발사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악사의 피스톨이 불을 뿜었다.

슉!-슉!-슉!

바람이 빠지는 것같은 소리와 함께 세명의 사나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빨리!』

그는 벽에 기대서있는 악사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어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28일(토) 본회사 개업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귀한 선물과 꽃을 보내주신 단체 및 은사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 올리며 성심성의껏 봉사하여 그뜻에 보답하겠읍니다.

김치배달을 시작합니다

6월7일(화)부터 본회사의 김치배달차량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주문을 기대합니다.

◎금주의 품목 및 가격

□풋배추김치(2ℓ 중간병) $6.00
□열무김치(2ℓ 중간병) $6.00
□통배추김치(4ℓ 큰병) $11.00
□무우말랭이짱아치(작은 통) $3.00
(유리병 큰것 $1.50, 중간것은 $1.00반환됩니다)

배달시간 매주 월~금 오후1시부터 밤8시까지.

주문전화 ☎833-6913(공장)
☎636-3071 ☎248-6389(밤)

김치카나다주식회사

과음후의 목욕

술을 마신뒤에 곧바로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한밤중에 취해서 귀가하면 싫어하는 것은 부인네들. 온갖 잡동사니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 이때 할 수 없이 억지 목욕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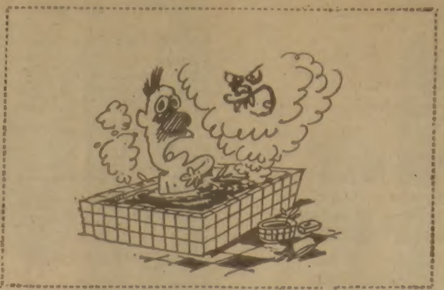
매일같이 목욕을 습관화 해온 사람이거나 적당히 마시고 기분좋게 돌아온 경우라면 그런대로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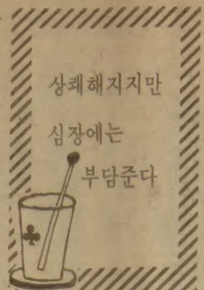
그러나 술을 과음했다면 당장의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체내에 알콜이 분해돼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자율신경을 자극, 가슴을 뛰게하고 얼굴을 붉게 만들며 머리를 아프게, 뱃속을 울렁이게 만든다.

이런상태서 목욕을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도 목욕물에 들어간 것만으로 심장은 마라톤을 할때와 같이 뛴다. 술을 마시고는 마라톤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알콜에 젖은 몸의 이른바 「땀을 빼어서」 기분상 상쾌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알콜의 분해는 90%이상이 간장에서 이뤄지고 그 배설의 대부분이 간장을 통하게 돼있다.





알콜과 고약한 술냄새등이 목욕으로 빠지거나 벗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전체의 10%미만이다.

하지만 목욕을 하면 몸의 혈행은 좋아진다. 그러면 오줌이 마려워져 알콜에서 분해된 물질들을 좀 빨리 내보내는 효과는 있다.

차라리 당장의 목욕보다는 찾게되는 냉수를 마시면서 과일을 드는것이 좋다. 감이나 포도등을 먹으면 술도 깨게해 제일 좋다. 이들 과일속의 과당이 알콜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하긴 목욕도 목욕나름이다. 술을 마신 바로 뒤는 옷을 벗는것 자체가 성가시지만 가벼운 샤워정도를 삼가할것 까지는 없다. 술기운으로 탕속에 오래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술을 마셨다하면 목욕부터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따른다. 가볍게 한잔 했다면 몰라도-.

목욕은 술을 마시기 전에 할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시간에 급급하다보니 항상 사후조치에 급급한 현실.

그래서 흔히들 과음후 얼마뒤에 목욕을 한다. 그리고 또 가볍게 맥주 한두잔을 하는것이 일상생활이다. 상쾌한 기분이 그저 그만이기 때문.

〈연재소설〉 **혼돈** ㊳

글 이태준 그림 최미정

제3편 허망

차의 엔진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있을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남의 집을 털기 위해 차를 타고 갈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긴장과 초조가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그들의 코 앞에 던져질 돈뭉치를 꿈꾸고 있었다.

가끔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헤들라이트를 눈부시게 비추며 쌩쌩 지나갔다. 영수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주었다.

"아직도 멀었니?"

뒷자리에 앉아있는 덕기가 의자너머로 영수를 넘겨보며 물었다.

"다 왔어. 5분만 더 가면 될거야."

우회전을 알리는 신호가 깜빡깜빡, 조용한 차안의 침묵을 깨며 차가 돌고 있었다.

"짤까!"

밑으로 내려졌던 회전신호기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순간 차가 한쪽으로 기울며 심하게 덜커덩거렸다.

"갑자기 왜 이러니?"

태영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빵구가 난 것같애. 뒷바퀴에 빵구가 난 것같애."

영수는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으며 맥빠진 소리로 투덜거렸다.

"더럽게, 하필이면 지금 빵구냐."

"오늘 재수 옴 오른 거 아니야?"

차가 심한 잡음소리를 내며 길옆에 서자, 말이 없이 앉아있던 사내들이 요란스럽게 차밖으로 뛰어나오며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어떡허지? 시간이 걸릴 텐데…"

만영이 바람이 빠져 쭈그러진 뒷바퀴를 구두발로 차며 영수를 쳐다보았다.

"바퀴를 갈아 끼우려면 30분은 걸릴 텐데, 모두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 태영이는 우리집을 아니까 만영이 하고 여기 남아서 바퀴를 갈아 끼운 다음, 차를 몰고 우리집에서 한블럭 서쪽의 네거리 귀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우리를 기다려."

"그럼 나머지 우리들은 걸어가잔 말이야?"

수한이 달갑지 않다는 듯이 물었다.

"멀지 않으니까 염려 말어. 빨리 나를 따라와."

영수는 차의 트렁크를 열고 호주머니 속에 드라이버를 쑤셔 넣으며 서둘렀다.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많은 숫자가 괜히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 나와 만영이가 남아서 바퀴를 갈아끼우고 뒤쫓아 갈 테니까 수한이와 덕기는 영수를 따라가."

태영이 망설이고 있는 수한과 덕기를 재촉했다.

셋이 걷는 발걸음소리가 잠든 도시의 밤거리를 불규칙하게 울렸다. 차지 않은 밤바람이 향긋한 풀냄새와 꽃향기를 뿌리며 그들 사이를 후후 지나갔다.

"저기다. 저 거창한 이층집이 내가 살았던 집이야."

입을 다물고 걷고만 있던 영수가 뒤를 돌아보며 소곤거렸다.

"어디 말이야? 저 지붕이 빨건 집 말이야?"

수한이 손짓을 해 보이며 물었다.

"그래, 지붕이 빨걸고 앞에 단풍나무가 있는 집 말이다."

"야! 니네 무지하게 부자구나! 저렇게 부잔 줄 알았으면 진작 한번 다녀가는 건데…"

덕기가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렸으나 영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집이 가까와 올수록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집이 비어있지 않는 걸까? 아니면 공탕을 칠려는 걸까?)

그는 애써 불길한 생각을 지우며 집으로 다가갔다.

응접실에는 불이 켜지고, 커텐이 쳐져있는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미영이가 도란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다. 가족이 지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상이었다.

그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 잘 걷지도 못하는 미영이는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영수는 양손가락으로 눈을 꾹꾹 눌러 나오려는 눈물을 막아 버렸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나와 친구들을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니까….)

영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수한이는 망을 보고, 덕기는 나와 같이 들어간다."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지시를 한 다음, 그는 옆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똑똑똑…"

"아무도 없을 거야.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차도 없지 않아."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뒤져도

돈은커녕 종이 한장도 나오지 않고…

덕기가 손에 장갑을 끼며 숨죽인 소리로 말했다.

"기분이 이상해서 그래."

영수는 열쇠구멍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한참 비비적거리다 탄력있게 드라이버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찰칵"

열쇠구멍 안에 드라이버만 들어가면 아무리 세밀한 열쇠일지라도 문제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는 숙달되어 있었다.

"그래도 모르니까 완전히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소리를 내지 말아."

영수는 덕기에게 주의를 주고 앞장을 섰다. 우선 안방 앞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대고 확인한 다음, 문을 슬그머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위에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펴진채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

영수는 전기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켜며 덕기에게 말했다.

영수와 덕기는 방을 수라장으로 만들며 돈을 찾기 시작했다. 화장대서랍, 침대, 옷장, 심지어는 카페트까지 들추며 돈을 찾았다. 영수와 덕기의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뒤져도 돈은 커녕 종이쪽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또 허탕인가 보다."

정신없이 뒤적거리며 돈을 찾던 덕기가 한숨을 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여기를 더 뒤져봐."

"너는 어떻게 할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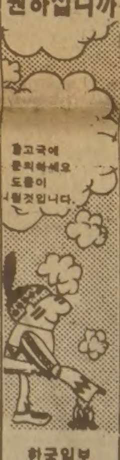
"지하실을 뒤질려구 그래."

"너무 늦었어. 시간을 너무 소비했어."

그러나 영수는 덕기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을 빠져나와 앞 출입구 옆벽에 붙은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쿵쿵 온 집안에 울렸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三國志 661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GRAND OPENING
JOHN'S JEWELLERY & GIFT
요한보석선물쎈타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다이아몬드와 금제품
파격적인 가격, 신용과 품질을
보장하며, 어느 상점과도 비교가
않되는 특별염가로 판매 합니다.

□결혼 □생일 등
선물용상품을 교민 여러분들께
준비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릴수 있게
노력과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태리제
⊙화채유리그릇 ⊙크리스탈그라스제품

MRS. 어
663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L1 Tel. (416) 532-8365

종교계소식

교계소식 533-2361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 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 416-533-2361

『북한 종교단체엔 교인이 없다』

귀순 이웅평소령, 기독교 지도자협회서 폭로

귀순용사 이웅평소령은 1일 「북한에는 조선기독교연맹과 조선천도교종단이라는 종교단체가 있으나 산하조직이나 교인이 없는 유령단체일뿐」이라고 밝히고 「북한에서는 종교는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지배계급의 통치수단이라고 교육시키고 있으며 김일성의 유일사상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령은 이날 하오2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오경린)가 베푼 초청간담회에 나와 북한의 종교실정을 폭로했다.

이소령은 「남한에 와서 8,9백만명의 기독교신자들이 있다는것을 알고 놀랐다. 이같이 많은 교인들은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무서운 힘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자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소령은 또 「북한에서 최학신이란 목사가 하나님을 믿다가 망하고 딸까지 죽는 내용의 영화를 본일이 있다. 이런 영화를 통해 하나님은 없고 공산당이 옳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묘향산에 사찰을 짓고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는 등 불교가 있는것처럼 위장하고 신학교를 건립, 성경을 출판했다고 북한에서 선전하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소령은 「묘향산에 보현사, 원산에 석왕사등 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인들이 오면 목탁을 두드리고 승려가 있는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그들은 승려가 아니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소령은 또 어릴때 누님으로부터 「묘향산에서 여승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자신은 승려를 본적이 없으며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승려를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소령은 이어 불교는 인도에서, 기독교는 미국에서, 가톨릭은 영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이들 종교를 모두 낡은 봉건통치수단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소령은 또 월남후, 새문안교회에 갔을때 무서운 기분이 들어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경을 선물로 받았을때도 받기가 무서워 거절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교육관 준공기념예배

6월12일 제일한인장로교회

제일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 김용출)은 오는 6월12일(일) 오후 7시30분 교육관 준공기념예배를 갖는다.

지난 3월에 시공, 지난달 완공된 동 교육관은 2층건물로 교회학교교육용 교실 5개를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이 완비됐으며 11만달러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됐다.

한편 6월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매일밤 7시30분 교육관 준공기념 부흥회를 개최한다.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번 집회의 강사는 옥치상목사(부산 성동교회 시무)이다.

부흥회기간중 18일(토) 오전6시에는 새벽집회를 갖는다.

동교회의 주소는 68 Collinson Blvd, Downsview (베더스트 북쪽, 윌슨에서 4블럭 북쪽).

「카리스마」창간

순복음 토론토교회

순복음토론토교회(담임목사 : 이필주)는 최근 동교회 월간선교지 「카리스마(Charisma)」를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어떻게 살것인가?, 사도바울의 생애, 믿음의 길잡이 성경교실, 신앙수기, 교회소식등이 실려 있다.

한달에 한번씩 발행, 무료배부되며 구독신청은 전화 : 889-6194, 247-9577, 881-7162.

천주교종합체육대회

25일 센테니얼공원

토론토한인천주교회(주임 최규식신부)는 2천6백명 신자들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위해 오는 25일(토) 아침부터 센테니얼공원(하이웨이 427 서쪽 래스번)에서 종합체육대회를 연다.

동·중·서부 구역대항으로 벌이는 이번 대회는 유년부·소년부·청년부·성년부·부녀부·노년부로 나뉘어, 육상, 구기, 오락경기등 다양한 종목으로 실시되며, 출전선수들은 구역별로 빨강·파랑·초록등 유니폼을 입는다.

봄맞이 특별야외예배

6월19일 블랙·크릭·빌리지

블랙·크릭·파이어니어 빌리지(Black Creek Pioneer Village)는 오는 6월19일(일) 오후2시 연례야외예배(Rogationtide Service)를 갖는다.

구내야외임시무대에서 열릴 이 예배행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합창단, 악단이 동원되어 더욱 인상깊다.

이날 예배의 주관은 알란·리드 목사이며 합창은 연합성가로서 스카보로 세인트 니니안교회, 세인트 존교회, 브램톤의 세인트·제임스교회 성가대가 담당한다.

이 연례야외예배는 종교적으로 봄을 기쁘게 맞고 자연에 대한 신의 축복을 감사하는 고대 영국의 풍속을 따라 전통적으로 지켜왔으며 특히 온타리오 초기정착민들은 열심히 지켜왔다.

이날 예배에는 또한 올드74하일랜드 백파이프악대가 참석, 예배분위기를 돋운다.

블랙크릭의 위치는 제인스트릿(Jane St.)과 스틸즈 에비뉴(Steeles Ave.)에 자리잡고 있으며 TTC 버스는 35B 제인과 60 스틸웨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 661-6600, 교환 262로.

교회단신

▲한인교회(반병섭목사) : 오는 6월29일(일)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갖는다. 6월12일 예배후에 입시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벧엘교회(최상봉목사) : 12일 예배에 아프리카 가나국선교사로 수고하는 정베드로목사 선교보고예배를 갖는다. 6월28일(화)부터 어린이를 위한 여름학교를 시작한다.

▲동부장로교회(홍순관목사) : 오는 6월27일부터 동교회 중고등부 하기수양회를 개최한다. 또한 11일(토)에는 교회학교교사를 위한 수련회를 갖는다.

▲미시사가연합교회(유환진준목) : 금주(12일) 브론테파크에서 야외예배를 갖는다. 지난 5일에는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강좌가 있었다. (강사 김보경박사)

▲영락교회(김재광목사) : 지난 4일(토) 부모님을 위한 친목관광회를 주관했다.

▲한인장로교회(박희민목사) : 4일(토) 동교회 염강회 야유회를 가졌다. 한편 6월19일(일)에는 보이드파크에서 전교회야외예배를 갖고 예배후에는 구역대항 가장행열, 장기대회, 줄다리기등 각종대회를 갖는다.

▲에멘침례교회(정태진목사) : 5일 동교회 춘계야외예배를 가졌다.

▲시민교회(조성관목사) : 11일(토)에 홍석철군과 김성숙양의 결혼식을 거행한다.

▲한인감리교회(박준하목사) : 오는 7월5일부터 동교회 교회학교 연합수양회를 콜링우드하스탈에서 개최한다.

▲한인천주교회(최규식신부) : 동 교회 도서실에 신간도서가 도착했다. 각종 다양한 책을 구입할 수 있고 빌려 읽을수도 있다. 구입문의는 전화 863-0415로.

▲새예루살렘교회(김승환목사) : 6월19일부터 1주간 굳델목사를 강사로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한인연합펜타코스탈교회 : 12일(일) 오후3시 심상대목사안수축하예배와 잔치를 갖는다.

▲충현교회(박경남목사) : 동교회 창립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특별바자회를 11일(토)에 갖는다.

▲웨슬레감리교회(여응순목사) : 매주 화요일 오전8시 동교회회의실에서 캐나다, 일본, 한국 3개교회 교역자 기도회 및 목회협조를 위한 친교를 갖는다.

"민주주의할 자질 있다"

민족유산 긍정하며 신앙적 사명감 피력

김대중씨 기독학자 회의서

(편집자주)
이글은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기독학자회의 특별연사로 초빙된 김대중씨가 27일 연설한 내용요점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지연되는 데는 독재정권의 연속집권, 언론의 무기력, 미국이 택한 기성체제지지정책등 구조적 원인이 깔려 있으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의 신념과 노력"이 약하다는데 있다고 김대중씨는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한국민족의 정신사에 민주주의적인 정신유산이 있으며 80년대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피력했다.

기독학자회 만찬에 연설중 김대중씨는 민주실현을 확신하는 이유로 국민이 지닌 잠재력의 두 측면을 강조했다. 첫째로 그는 민중의 투쟁, 즉 민중동원에 효력을 보아야 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립투쟁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독립은 자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신념과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광주사태때 한두곳이 더 호응했으면 군부나 미국의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타지역에서 호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김씨는 광주사태 발생전에 수감되어 사건발생후 60일만에 이를 알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의 "신념과 노력"의 실증으로 그는 해방후 한국민이 40년간 민주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했으며 4.19에 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붕괴, 71년의 박정권에 거족적인 반대를 표시한 선거, 그리고 79년의 「부마사태」를 들었다. 특히 79년 박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다면 부산·마산의 봉기가 타지에 확대되어 국민의 손으로 주권이 회복됐을 것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리고 80년 현정부 수립이후 민주 회복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민족의 한"이 해소돼야 하는데 이것이 80년대의 민주회복으로 실현된다고 그는 확신을 피력했다.

둘째, 민주화를 위한 정신유산으로 김씨는 「한」이라는 심리적 동력과 신화, 한국 고유종교에 흐르고 있는 평등사상을 들었다. 「한」은 기본적으로 인간대우를 받아야겠다는 인권의식으로 보는 김씨는 정조를 지키며 옥중에서 낭군을 기다리는 춘향의 한, 속아서 간을 빼앗기려 용궁에 끌려간 「토끼전」의 한, 형에게 재산을 뺏기고 굶주렸던 흥부의 한을 인용했다.

그 한이 풀어지기 전에 민중은 단념하지 않으며 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이 풀어지면 그 뒤에는 보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는 민주실현에서 정치적 보복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민주제도는 서구에서 나왔지만 그 원리가 서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어디서나 그 원리는 있을 수 있다. 제도는 빌려 입으면 된다." 「홍익인간」의 단군신화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에서 흔치 않은 것이며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는 동학사상도 세계사에서 빛날 민중의식의 기록이라고 그는 말하고 유교에도 민주적 요소들이 있었다는 재해석을 내렸다.

50년대에 장면박사를 따라 캐톨릭 영세신도가 됐던 그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믿었으나 박대통령의 3선개헌 반대투쟁때 김재준박사를 만나고 NCC가 한국 민권에 관심을 표한데서 정치상의 정의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네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중에는 73년 일본에서 납치되어 선박에서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그는 "빨간 불"을 보았고 폭음을 들었으며 그순간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고백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됐다"고 그는 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터득했다고 한다.

진실한 신자는 개인의 구원추구와 겸해 사회구원을 추구해야 하며 "고난받는 사람속에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예수를 안볼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했다. 신앙으로 자신을 재발견함으로써 그의 투쟁은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는 집권투쟁보다는 신앙실천을 위한 민권투쟁으로 변모됐다고 말한다. 80년 7월 수감중에 만사가 싫어져 군부와 타협할 생각도 했었으나 광주사건을 신문에서 알고 "영령들과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타협보다는 "함께 죽겠다"는 각오를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사형선고로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신념이 생겼고 그때문에 살아남은 자신의 생명에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국민이 인간대접을 받고 사는 나라"과 되도록 민주회복을 위해, 그리고 이북과 대화하며 주변국가들과의 이해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문을 여는 사명을 맡겼다고 믿는다"고 그는 말했다.

세계인구 20세기말 60억돌파

빈곤인구 75%에 대한 대책 시급

세계의 인구 폭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구자료조사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인구는 모두 46억7천7백만명으로 지금부터 17년후인 2천년에 이르면 31%가 증가한 61억3천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현재 46억7천7백만명의 인구중 선진국에서 「합당한 삶」을 누리고 사는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후진국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주로 이들 후진국에서 일어나 2천년경에 이르러서는 「합당한 삶」을 누리고 사는 인구의 비율이 5명중 1명꼴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

이 통계에서는 2천20년경의 세계인구는 78억1천만명으로 이때에는 6명중 1명꼴밖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없으며 전인구의 83%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식량공급면에서 볼때 가장 취약지역은 동부아프리카이며 이디오피아는 식량공급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현재 인류의 절반가량이 중공,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 아시아 4개국 국민들과 인접하여 살고 있다.

▲인류는 39년내에 2배로 늘어나지만 케냐는 17년내에 2배로 증가되며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3천4백65년후에야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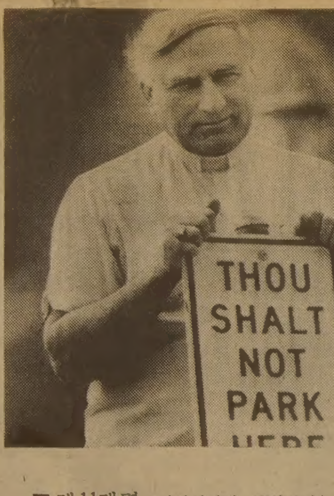
▲인류가 10억에 도달한 때는 1800년 무렵이었으나 그후로 10억씩 늘어나는 기간은 점점 빨라져 20억에 도달한때는 1930년, 30억에 도달한 때는 1960년이었으며 1975년에는 40억에 도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페르시아만 연안의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이며 이들 국가 다음으로는 스위스, 스웨덴의 순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버마, 제이레, 부룬디, 어퍼볼타 등으로 나타났다.

▲카타르의 30만 국민들은 연평균 2만7천90달러의 수입으로 세계최고를 기록했으며, 방글라데시의 9천6백50만 국민들은 연평균 수입이 1백44달러로 세계최저를 기록했다.

2000

1. China	1,245,000,000
2. India	966,000,000
3. USSR	309,000,000
4. USA	268,000,000
5. Indonesia	199,000,000
6. Brazil	187,000,000
7. Bangladesh	149,000,000
8. Nigeria	148,000,000
9. Pakistan	142,000,000
10. Japan	130,000,000



▼제11계명—성당마당에 주차시키는 얌체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있는 새크라멘토 교외에 위치한 「홀리패밀리」성당의 비토·미스트레타 주교가 모세의 10계명의 문투를 이용하여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라고 쓰인 표지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보이고있다. <새크라멘토-AP>

"2重문화형성 불가피"

최영식 박사 아시아 여전도회 세미나서 강조

〈시카고지사〉 『미국내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망각함으로써 주체성없는 한계적 입장에 처할 우려가 있으나 조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현명하고 완전한 이중문화 인간이 될 수 있읍니다.』

『미국까지와서 구태여 왜 복잡스럽게 이중문화를 가져야 하느냐』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최영식박사(시카고소재 콩코디아대학교수, 동 대학 복합문화교육책임자)는 미국의 소수민족들이 불가피하게 이중문화를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등 아시아계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여전도회 연합회(회장·이순복)주최로 베다니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 「동양계 소수민족 이민사회에서의 부모와 청소년관계 해석」이란 주제 강연과 세미나에서 최영식박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아무리 미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미국인들은 외관상 용모가 전혀 다른 동양인들을 백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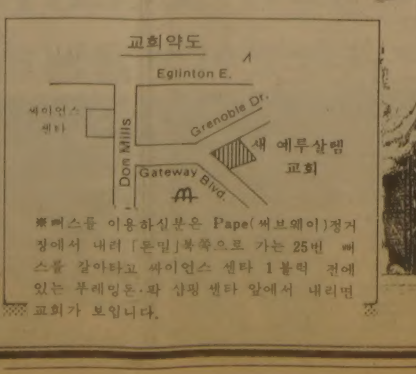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교육역사와 철학」 및 「교육사회학」을 전공한 최박사는 이러한 동양계 소수민족의 위치를 「한계적 입장」(Marginal Surroundings)라고 규정짓고 소수민족은 미국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완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과 주체성을 갖고 조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 완전한 이중문화 인간이 됨으로써 이질적인 미국문화와 조화를 이뤄 심리적인 타격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흥성회

□강사 • 데니스 • 굳델목사(Dennis Goodell)
□통역 • 김승환목사
□일시 • 1983년 6월19일(일) 오후8시30분
1983년 6월20일(월)~6월25일(토) 오후7시30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않는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은혜받고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굳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소년시절에 나쁜 무리와 사귐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깽의 무리와 어울려 지낸적이 있읍니다. 삶의 무가치와 허무를 느꼈으므로 자살하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곧 미해병대에 들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른 다리를 잃을 때 까지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수한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읍니다.



※버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버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후레밍돈·파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 Building

PAOC 새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429-2685

한국일보

기부금·위문금·출연금등

企業의 準租稅부담 너무 많다

업체당 年 3億5천만원 꼴

"稅留保制도입 개선을"

全經聯 4백40업체조사

각종기부금·공과금·위문금·출연금및 기타잡부금등 準租稅부담이 너무많다。

지난81년중 우리나라 기업들이낸 준조세는 업체당평균 3억4천5백99만원으로 총매출액의 0.55%에 이르고있다。

특히 우리나라기업은 무거운 세금을 내고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반강제적으로징수되고 있는 준조세의부담이 법에따라내는 세금의 78.6%에 달한것으로 나타나고있어 각종 기부금의 稅額공제 또는 損費인정확대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3일 全經聯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국내 4백40개기업을 임의추출,조사한「準租稅부담에관한 이론적 고찰과 부담수준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준조세부담률은 80년도에는 총매출의 0.48%, 81년에는 0.55%로 해마다 점차 높아지고있다。 부가가치에 대한 준조세의 부담률은 80년에 2.37%, 81년2.75%로 나타났다。

매출액대비 준조세부담률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80년 0.49%에서 81년 0.56%로,중소기업은 80년 0.46%에서 81년0.41%로 나타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부담률이 높다。

그런데 81년 준조세부담률 0.55%는 같은 해의 기업광고비 비중이 0.50%이고 연구개발비가 0.54%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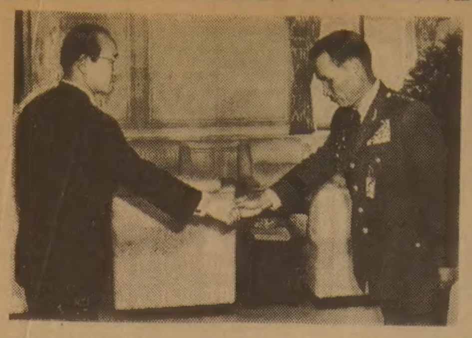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 조세법규상 협의의 공과금은 전액損金으로 인정되나 기업의 자발적인 성격을 띤 기부금성 공과금은 세법상 부분적으로 손금이 인정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全經聯은 기업의 사회복지적지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에서 기부금성 공과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와▲기부금성 공과금을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세유보를 해주는 稅留保制度등을 도입, 세제상의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咸비서실장 출국

咸秉春대통령비서실장은 약15일간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를 각각방문하고 3일하오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咸실장은 이들3개국 방문기간중 방문국의 정부지도자들과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金融緊縮 계속강화

姜재무 "企業은 부동산投資만 관심"

姜慶植재무부장관은 3일 지난해부터 정부가 금리인하및 각종 자율화조치등 일련의 기업활동지원시책을 추진해왔으나 각기업은 부동산투자만을 늘려왔다고 지적、이로인해 자금이 비생산적부문으로 흘러는것을 바로잡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기위해 현재의금융긴축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姜장관은 이날상오 서울플라자호텔서 열린 全經聯종합심의회에서 기업은 기술혁신및 신상품개발을위한 시설투자확대등에 보다 노력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姜장관은 또올들어 4월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해 공급한 민간여신은 총3조5천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5천억원이 증가했다고밝히고자금사정이나쁘다고한다면 긴축때문이 아니라 자금의흐름이 잘못됐기때문이며 따라서 대기업여신긴축등 긴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姜장관은 통화공급을 늘릴경우 내수경기를 지나치게 자극、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연말까지 총통화증가율을 15%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姜장관은 또 국내금리수준이 낮다고하나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오히려 높은수준이므로 기업은 은행빚을 갚아 재무구조개선이 긴요하다고 말하고 긴축의 여파로 私債가 성행할 경우 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자리서 全經聯은 ▲신축성있는 토지정책운용▲통화공급억제의 단계적이고 긴축적인 운용▲상업어음 재할인율인상▲현지금융의 동일인한도규제외취급▲기술개발자금지원확대등을 건의했다。

이날 全經聯종합심의회엔 鄭周永회장을 비롯、具滋暻 鄭寅旭 朴龍學 金龍周 金相鴻 申德均 李元淳 崔泰涉 金鎭炯 元容奭 李珉奭 金珏中씨등이 참석했다。

"開途國번영聲明반영"

全대통령·나까소네通話 西方頂上회담설명

全斗煥대통령은 3일하오 미국에서 열린 西方선진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나까소네(中曾根)日本수상과 23분동안 전화통화를 가졌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西方선진국 頂上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이번 회담에서는 본격적인 세계경제의 회복전망이 밝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호무역주의등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모든요소를 제거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까소네수상은 또『南北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번영없이 선진국의 번영이없다는 원칙을 주장해 공동성명에 반영시켰으며 소련의 SS20미사일의 아시아배치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아시아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에대해『南北문제、核軍縮문제 특히 아시아에 대한 위협증대를 전제로한 SS20의 이동배치에 확고한 결의를 피력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이번 정상회담은 자유진영 지도자들의 단합을과시하고 협조정신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 신고받아

全斗煥대통령은 3일상오 청와대에서 李基百신임 合參의장으로부터 補職변경신고를 받았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이 배석했다。〈사진〉

볼리비아下院의장 全대통령 예방환담

全斗煥대통령은 3일 하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볼리비아의 사무엘·가야르도·로자다下院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合參의장에 李基百대장

정부는 3일 합참의장겸 대간첩대책본부장에 李基百대장(52)을 임명、발령했다。 ★얼굴2면

한편 전의장 金潤鎬대장은 이날 하오2시 육본광장에서 전역식을 갖고 예편됐다。

◇李합참의장 약력

▲육사11기 졸업 ▲연대장▲제3사관학교 교수부장▲훈련단장▲사단장▲國保委운영분과위원장 ▲군단장 ▲육군참모차장 ▲군사령관

모든 화장품 포장·용기에 한글표기 併用 의무화

외국어투성이인 화장품 포장및 용기의 각종표기가 정비된다。 보사부는 3일 국내에서 생산시판되는 각종화장품이 영어등 외국어표기를 과다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국민주체성확립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 이달말까지 모든 화장품에 반드시 한글표기를병행하도록51개 화장품메이커에지시했다。

이지시에 의하면 신규등록제조되는 화장품은 물론 이미 출고된 화장품이라도 대리점을통해 한글 상품명이표기된 스티커를 부착, 판매토록돼있는데 보사부는 이달말까지 자율적으로 정비케한뒤 7월부터는 표시및 기재에관한 처분기준에 따라경고, 시말서 처분을거쳐 품목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벌일방침이다。 보사부는또외국과의 기술합작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나라의 문자나 영어로 상품명을표기하는것과 함께 반드시눈에 뛸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한글을 아울리 표기토록했다。 한편 보사부는 모든 공산품에 해당되는「표시허가 사항에 관한 관리지침」을 경제기획원에서 마련하는대로 해당품목표기에 관한 처리지침을 별도로 제정, 의약품등록때 명칭을 심의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해서도 제품명칭을 심의 허가해줌으로써 수입화대에 따른외국어범람사태를예방키로했다。 82년말현재국내의화장품은 51개메이커에서 4천4백93개 품목을 등록, 현재 이중 1천4백여가지가 생산되고있으나 최근 수입자유화및 외국과의 기술합작부자봄을 타고 대부분의 업체가 의도적으로 외국어를 마구사용, 한제품의 상품명이 한글로 표기할경우 20자가 넘을정도로 국산품이면서도 외제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 판매해왔다。

不動産 仲介法案 民正補完提出키로

民正黨은 3일상오 政策委의장단회의를 열고 그간 老人복지문제와 관련, 논란을 벌여왔던 不動産仲介法案을 補完,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鄭石謨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후『이법안의 목적은 仲介業者의 公信力을높여 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고 밝히고『현행 소개업자의 이익도 보호하는선에서 黨차원의 보완작업이 끝나면 임시국회에 제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의 한 정책관계자도 이와관련,『현행 부동산중개업의 申告制를 일순간에 許可制로 할경우 충격이 크기때문에 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市등 6大도시와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허가제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히고『그러나 이法제정목적이 중개인의 公信力을 높여 거래질서확립을통한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쪽으로 보완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公務員교육·훈련강화

海外연수및 실천적인것에 力點

정부는 공무원에대한 교육·훈련을 海外硏修나 실천적인 훈련에 역점을두어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공무원이 경제、사회、문화등 사회전반의 발전에 核心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특히 先進國으로도약에는공무원들의이 선진국의경험을배워올필요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長期해외훈련 파견공무원수를 현재의 40명에서 1백명으로 늘리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할사업과 관련되는 해외의 정부기관、연구소등에 1~3개월 기간으로 공무원을 보내 硏修케하는 短期연수 파견제도를 채택、지난달30일 제1陣 45명에게 9가지의 연구테마를주어 출국케했다。

이와함께 총무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행정의中堅간부가될 新任 과장급을 을 대상으로하는 核心관리자과정을 설치、3일 1차로 60명을 수료시켰다。

총무처는 이날 各部處의 보낸「83년도 國費장기해외훈련 추가선발」계획을 올해 6월중 40명을 追加로 선발、선진외국의 저명한대학과 국제기구、연구기관등에 유학 또는 조사연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勝負에 너무집착 팬들에 미안"

拘束된 金振榮감독

구속된 三美슈퍼스타즈팀감독 金振榮씨(47)는 3일 서울江東경찰서에수감되기직전수사과장실에서기자들의질문을받고아래와같이대답했다。

-구속조치에대해。

▲승부에 너무집착、흥분했던것같다。국민들과 팬、특히 어린이팬들에게 면목이없다。그러나 월말에 끝나는 전기리그후라면 어떤처벌도 감수하겠다。큰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가고싶다。

-심판판정에대해서는。

▲아직도 나의 판단에는 변함이없다。金東昂주심은 평소 나를 형님처럼 따라 가깝게 지냈[illegible] 그나름대로 판단했을것같다。

-구속사실을 언제알았는가。

▲부산게임이 끝난뒤 덕아웃뒤 복도에서 형사들을 만나 알았다。

-지금의 심정은。

▲내일부터 열리는 三星、해태등과의 중요한 게임을 앞둬 막막할뿐이다。마침 張明夫투수의 일본팬클럽인 히로시마컵스에서 40~50명이 내일 三美게임을 보러 방한한다。일본까지 나의 구속이 알려져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누를 더하게 할것같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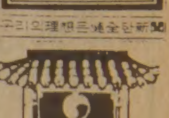
社會漫評

「심판」을 보기로…

地平線

연초에 나까소네 일본수상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부터 韓日 양국신문에 韓·美·日 3角安保협력이란 말이 자주 실렸다。그이전에도 3국간의 3角安保협력이란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保守右翼의 빛깔을 띠는 나까소네수상이 미국방문에 앞선 韓日頂上회담에서、이협력체제가 거론된데서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나까소네 수상은 워싱턴 방문중 일본의「不沈航母」、4해협봉쇄등의 강경 발언으로 소련을 자극했다。그로미코 소련외상은 지난 4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核기지로 소련SS-20중거리核미사일의 과녁이 될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韓·美·日3角安保체제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소련이 韓日양국에 경고를 넌셈이다。▼지난봄 서울에온 前 白堊館안보담당보좌관 리처드·알렌씨는 3角安保체제를 이렇게 풀어나갔다。韓·美·日3국이 한꺼번에 한직선위에서 협력하는 개념이라기보다 3국중 각2국의 협력을 통한 3角安保-韓美와 美日간의 상호방위조약에 토대둔 군사협력에다、韓日간의 협력이 플러스 되는것이 3角安保라는 것이다。▼알렌씨는 정찰등 韓日공군의 군사합동작전이 장래에 가능해 질것이라고 내다보았다。양국해군의 합동군사작전도 뒤따를수도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런가-하던 참에、美해군대학의 안보문제담당 에드워드·올슨교수는 西태평양과 인도양의海上교통항로를확보하고 中東평화를 유지하는데 한국의 군사적지원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글을 한 미국신문에 기고했다。▼올슨씨는 미국의 韓半島문제의 한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한국이 소형함정 또는 항공기들로 해상통로방위에 참여할수있는능력과、미국의 신속배치군에 1~2개대대병력을 파견할수 있는힘이 있다고 말했다。물론 그의 개인적 의견이겠지만、아리송했던 3角安保체제의 꺼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

그는 또老人복덕방의 경우 市·郡·區에서만 영업활동을 할수있는 일반중개인의 자격여 일을 가지정요 전만갖추후 본인들이 원하면 영업보증제를 할수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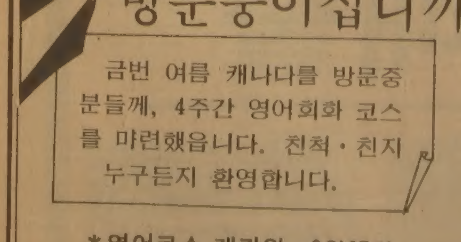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취급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카나다를 방문중이십니까

금번 여름 캐나다를 방문중 분들께, 4주간 영어회화 코스를 마련했읍니다. 친척·친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영어코스 개강일—6월27일
—7월25일
—8월29일

자세한 문의는 923-6947
무료 안내책자를 제공합니다

14 COLLEGE ST. TOR., ONT. M5G 1K4
☎923-6947

샛별한글학교
여름학기
학생모집

기 간 : 7월4일~8월5일 (5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 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학 급 : 유치반 고급반
초급반 고급반
중급반
등 록 : 7월4일 전까지(전화등록받음)
수업료 : $120 (5 주간)
문의 및 연락처 : 이영희 293~3149
문관식 923~2007
학교위치 : CHURCH HEIGHT Public School
749 Brimorton Dr.
Scar. Ontario
(1 Block south of Ellesmere Road)

샛별한글학교

'83 씨알예술제

82~83학년도 씨알학교 어린이들의 하계발표회, 미술전시 및 졸업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부모님들과 여러 친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6월11(토)오후7시30분
□장소 : WEST TORONTO 고등학교
330 LANSDOWN AVE

150 Madison Ave Toronto Ont M5R 2S3
Tel 960-6074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비데오 게임 머신

가게를 경영하시며 비데오게임 머쉰을 소유하신분들께 희소식을 알립니다.

본사에서는 종전의 5할제에서, 6할제로 이익을 여러분께 드리며 가장 이윤이 높고 인기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 친절하게 봉사하겠읍니다.

□즉시 수리
□새 기계 (NEW MODEL) 항상 보유

6할의 이익
☎924-5597
대표 박 용

"국민投資기금 技術개발에 썼으면…"

姜재무초청… 財界의 金融정책간담회

姜재무 緊縮완화보다 돈흐름잡아야
財界 大·中·小구분 金融지원 절실

정부의 금융긴축시책강화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규제문제를 놓고 姜慶植재무부장관과 鄭周永全經聯회장등 재계인사들이 3일상오 서울시내 롯데호텔 오키드룸에서 만나 경제토론을 벌였다. 이날 모임은 全經聯이 정부시책의 방향을 직접듣기위해 재무장관을 초청한 자리로 마련됐다. 상오7시30분부터 9시10분까지 1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된 攻防戰내용을 紙上중계로 간추려본다.

▲姜장관 인사말=재계와 당면문제에 관해 기탄없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우리경제는 현재 큰변혁을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동안 노력한 결과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 국제수지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기시작하고 있다. 그러나이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계속 정부와민간의 합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姜慶植재무장관(中)은 3일 全經聯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긴축정책은 불가피한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崔泰涉한국유리회장=기업쪽에서 볼때 우리경제는 이제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간다고 보고 생산 품질 원가절감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증설이나 기술개발,도입등에는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거꾸로 가고있는 것 같다. 모든 대출을 중단한데다 대출한도까지 축소하고있어 기업은 어려움만 겪고있다.

▲姜장관=지난 78년경제가 과열됐을때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 기업의 자금난이 심했던 때가 있다. 과열을 진정시키고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일이다. 돈을 많이 풀어도괜찮다면 왜긴축을하겠는가. 통화량은 작년말보다 3조5천억원이 늘었다. 작년 같은기간의 증가액 3조원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어서 적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연말까지 통화를 15%로 낮출 계획이며 5월말까지는 우선21%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량은 아무리 늘려도 작년과 금년통틀어 40%이상은 늘릴수 없다고 보는데 작년에 27%나 늘었으므로 금년에 13%로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5%수준도 낮은 것이 아니다.

과거처럼 물가가 오를때라면 몰라도 도매물가상승률이 1%정도로 낮은 수준에선 더이상 통화증가가 곤란하다. 돈이 많이 풀려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가 다시 오를 우려가 있다.

▲朴恩台미주산업회장=저임금을 무기로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고 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수출을 해야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던 국민투자기금을 기술개발부문으로 전환시켜 지원해주어야한다.

▲姜장관=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에 지원되든 기술부문에 지원되든 결국은기업에지원되는것이다.

현재 각종연구기관을 통해 기초기술분야에 1천억원의 기술지원자금이 나가고 있으며 그밖에 産銀 벤처·캐피탈등도 지원되고있다. 또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과거 특정산업에만 혜택이 있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모든 산업에 주어지고있다.

▲金光均건설실업회장=현재 우리경제는 수입이늘고 중동으로부터 무역외수지는 줄고있다. 또 세계각국에 국제수지가 어려운형편이다. 외화절약책을 세워나가야 할것으로본는데.

▲姜장관=옳은 말씀이다. 정부도 외채부담을 줄이기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金龍顯대한제분회장=현재의 자금흐름은 무언가 잘못되고있다. 돈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돈이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모르겠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2분되어있는 기업구분을 大·中·小기업으로•3분하는 금융정책을 펴주기바란다.

▲姜장관=상업어음할인문제라면 다시 이야기는 통화로 돌아가게된다. 통화가늘면 현재 우리국민이 어렵게 달성한 한자리물가유지도 어려워진다.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 잘못됐기때문이다. 그흐름을 바로 잡아야한다.

▲申奉植 全經聯전무=기업이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다고하는데 정말 기업들이차입금을가지고공장부동산에투입했다고보는가. 현재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의 구분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고있다. 화물하치장폐품처리장주차장등사업상필요한땅도비업무용으로구분되기쉽다.

▲姜장관=모든 기업이 부동산을 사는데 관심을가졌다고 볼수는없지만 일부기업이 부동산에 관심을갖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중 기업의 부동산취득은 81년의2배에달하고있다. 자기돈가지고 땅사는 것을 무어라하지는 않겠다.

▲鄭周永 全經聯회장=한국경제가 선진공업국으로 진입하려면 기술개발투자에 힘써야한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끝으로오랜시간좋은말씀해주신姜장관께감사한다.

메아리

一罰一戒

뉴욕 양키즈팀엔 두사람의「독설」이 버티고있다。미국 프로야구의 괴물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돌풍을 몰고다닌다。

구단주인 스타인브레너는 입이 거세다。마틴감독은 공격적기질로 행동이 거칠다。요즘 두奇人이 며칠 사이를두고 떠들썩한 말썽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구단주는 심판 판정에 여러차례 울화를 터뜨렸다。참다 못한 맥페일 아메리칸리그회장이 단호하게 근신처분을 내렸다。1주일 동안 경기참관을 금지시킨은 물론, 뉴욕 양키즈스타디움 사무실 출입도 막아버렸다。

한편 과격한 빌리·마틴감독은 캘리포니아 원정경기중 호텔 바에서 목을 축이다 소동을 빚었다。시합에 지고난 뒤 몇이 어울려 앉아있는데 웬젊은이가 은근히 다가와 맥주를 사겠다고 자청했다。

이 틈바귀에 주먹이 날아왔다고 억울한 청년은 경찰에 고발했고, 마틴 감독은 폭력을 쓴 일이 없으니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불같은 성격의 그는 싸움이 잦다。

스포츠기자와 술집에서 맞붙었던일이 있었는가 하면, 2년전엔 그라운드에서 난폭성을 드러냈다。판정이 틀렸다고 원 투 스트레이트를 주심의 가슴에 날려 땅에 눕혔다。이것도 모자라 흙을 집어 등에 뿌리는 모진 행패를 서슴지 않았다。

이때 아메리칸 리그회장은 1주일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고 잇달아 1천달러의 벌금을 물렸다。프로야구 元祖의 나라 미국에서도 관전시비는 말썽의 표적을 면키 어렵다。

일본 프로야구도 남의 불구경하듯 태평하지 못하다。판정에 잔뜩 불만을 품은 두 코치가 합세, 심판을 KO로 몰아붙인 불상사가 지난해 있었다。

오늘의 경기장은 현대의 신화가 만들어 지는 축제마당이다。표백된 인간의 모습이 생동하는 스포츠무대엔 흥분으로 저질러지는 인간의 결함이 숨을 곳이 없다。

아무 걱정 없는 완전한 행복이란 이세상에서 찾기 어렵다。누구나 큰걱정、잔 걱정、게다가 쓸데 없는 걱정까지 짊어지고 산다。그라운드에 들어서면 이런 앓음이 말끔히 가신다。

杞憂란 말은 터무니 없는 걱정을 뜻한다。옛 杞國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지면 어쩌나 늘 걱정하며 지냈다。쓸모 없는 염려다。

스탠드에서 팔을 걷고 허공에 삿대질을 한들 어떠랴…。하늘은 찢어지지 않는다。쾅쾅 밟아 아플만큼 굴러도 대지는 꿈쩍 않는다。杞憂는 커녕 진짜 걱정도 생각할 틈이 안 난다。

운동장의 함성은 소음이 아니다。그것은 가식을 밀어내고 삶의 만족감에서 우러 나오는「和聲」임이 분명하다。그러나 한가지 염려는 떨쳐버리기 어렵다。「흥분의 절도」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이다。이것이 杞憂가 될 날이 빨리 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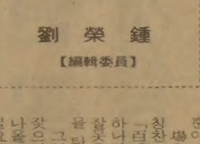
스포츠의 주역은 스포츠맨임은 당연하다。페어플레이는 스포츠인들이 지닐 철칙이다。이 철칙에 반하여 걸린 경기는 스포츠가 아니다。꼴찌보다 첫째가 백번 낫다。지는 것 보다 이기는 쪽이 훌륭하다。그렇다고 승부가、거친「過熱」로 이어진다면 그 몰골이 흉하게 보인다。어설픈 관전도 보기 딱하다。그래도 일단 승복하는 것이 스포츠정신인줄 안다。

텔리비전에서 본 테니스선수 보리의 판정 항의자세는 다시 떠올려 볼만하다。말없이 심판의 얼굴을 쏘아 보는 그의 눈길엔 얼음장같은 冷氣가 감돈다。심판의 태도도 의연하다。그뿐이다。경기중 해프닝이 흥미롭다。

場內의 과열 못지않게 場外의 과열도 칭찬 받을 일이 못된다。「一罰」로「百戒」한다는 의지는 알만 하다。하나의 과실을 벌함으로써、백가지 잘못을 미리 예방하고 경계한다는 뜻을 탓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一罰百戒」가 그 度를 넘고 잦으면「一罰一戒」의 효과말고 무엇이 나올지 의문스럽다。지금 이사회에 필요한것은 자제력과 자기치유력을 길러가는 일이다。쇼크요법이 아닌「절제의 投藥」이 절실하다。

스포츠는 다른 外的 요인이 많으면 그발전이 오히려 더디지고 위축된다。스스로 자각하고 철이 들어가야 체질이 강해진다。「스포츠는 스포츠답게」피어나가도록 보살펴 주는것이 육성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된다。



劉榮鍾【編輯委員】

記者의 눈

黨政協議의 문젯점

요즘 서울시내 寬勳洞의 民正黨舍는 6월임시국회에서 다룰법안을 事前審議하느라 소속의원과 행정부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있다。

국민의 대표인 議員과 행정관료의 잦은 왕래와 접촉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모두 民生과 직·간접으로 관계가있는 事案들을 改善·처리하기 위해 黨政간에 애를쓰고 있구나하는 흐뭇한 느낌이다。

특히 黨政의 절충과정에서는 행정부의 과도한 行政便宜主義 경향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즉 행정부는 당초부터 그들이 만든 법안이나 정책구상을 民正黨에넘겨 논의하는것을 기피하면서 그들손에서 결정해 처리했으면하는 關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많은 후유증을 낳았던 實名制파동도 행정부의 單獨실정、발표를 한뒤에 黨政협의를 했기때문에 빚어진 것이며 국제原油價인하에 따른 국내油價반영비율문제도 행정부가 임의로결정하여 파란을 일으켰던것이다。

이러한 예는 최근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 讓渡所得개선방안을 논의하는자리에서『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紙上에 보도까지되었는데 뒤늦게 보고하는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대학교육協議會法을 심의한 3일의 黨政협의에서도『권한은 문교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딴곳으로 돌리려고한다』는 행정편의위주의 경향이 지적되어 유보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黨政협의자세에대해 黨의 한 관계자는『고위층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사전결재를 받아 黨에 통고하는 과거의 태도는 많이지양됐지만 그들위주의 行政便宜的태도는 여전하다』고 꼬집고있다。

행정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치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심조심 눈치를보며 정책을 구상하고 법안을 만들지만 사정이조금이라도 好轉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서슴지않고 경직된 자세를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民正黨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정책정당을 표방하고있지만 정책을 다루는 民正黨의 기본태도는 스스로 民意를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創案하는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든作品에 그들의 색깔을 이따금 지나치게 칠하려는 경향이 적지않은것이다。정당에게는 어떤상환이 발생했을경우 신속하게 대응책을 세우고代案을 만드는 순발력이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런데도 民正黨이 행정부의 등에업혀 정책활동을 계속하겠다는 被動的생각을 버리지않는이상 黨政협의는 항상 논란과잡음이 뒤따를 여지가있는 것이다。

【李以倚정치부기자】

"愛國하는 마음으로 美國위해 헌신하겠다"

5월 인터뷰 美獨立 기념행사준비위원회 委員長 李俊九씨

『미국을 위해 좋은일을 하는게 조국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말 83년 美독립기념행사준비위원장으로선출된 한국계 미국인 준·리씨(51·한국명 李俊九)는 2일愛國한다는 자세로 자신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57년 渡美、62년 미국에 우리고유 무술인 태권도를 처음으로 移植, 현재 23개道場을 갖고있는 李씨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平統자문위원으로서 平統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중이다。

ㅡ외국인출신으로 美독립기념행사준비위원장에 선출된 前例가 있는지。

『이 행사는 美 정부 주관으로 진행돼오다 81년부터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代위원장은 미국인이었고 외국인이 지휘권을 갖게된 것은 이번이처음입니다』

ㅡ위원장으로 선임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있는지。

『이 기구의 창설자인 살쯔·버서슨씨가 강력히 추천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제가 青少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李씨는 月刊잡지「워싱턴니언」誌가 지난해 8월호에서 워싱턴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한「스타즈·오브·워싱턴」워싱턴에서 가장존경할 만한人物 28명의 명단에도 포함됐으며 주간지인 퍼레이드紙가「준·리의 태권도장에 나가면 우등생이된다」고 보도하는 등 워싱턴에선 有名人으로 알려져있다

ㅡ이번 기념행사중 한국을 소개하는 특별프로가 있는지

『6월10일 우리의상을 소개하는 패션쇼에는 美上下院의원및 장관부인 15명이 모델로선정되어 한복과 양장을입고무대에 오르게되며 또7월 4일 퍼레이드를 장식하는 [illegible]이는 비용을 個人측에서 모두 부담하기때문에 TV방송등을 통해 美全域에 홍보될 것입니다』

ㅡ[illegible]이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2만5천달러에서 5만달러정도로 예상합니다。이 경비는 패션쇼 수입과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초단이되기까지의 경비 2천5백달러를 半額할인한 先拂수입으로 충당할 생각입니다』

李씨는 이밖에도 독립기념일인 4일 퍼레이드행사의 대회장으로 金落植88올림픽조직위원장을 추천、金씨가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25개국의 총지휘자가 됨으로써 서울에서 개최되는 88올림픽을 간접적으로 PR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ㅡ태권도 제자들은 몇명이나 되는지。

『上下院의원 12명을 포함 워싱턴에서만 7만명정도이며 전체수는 50만명정도가 될것입니다』

ㅡ준·리태권도장이 유명한것은 지도방법의 차이때문인지。

『우리도장에선 주먹을 단련시키는게 아니라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있읍니다。머리에는 지식、마음에는 양심、몸에는 건강이란것을 모토로 삼고있으며 81년부터 고교생들에게 우등생이 되지않으면 검은띠를 주지않고 있지요。이같은 지도방침에따라 지난해부터 수련생의 80%가 학과성적이 좋아져서 우등생이 됐읍니다』

【李在武기자】

나까소네 執權7개월 人氣度 판가름

日、오는 26일 參議員선거

過半數안되면 政局 혼란예상
行政개혁·軍備확장 최대 쟁점

일본은 오는 26일參議員선거를 실시한다. 3일을 기해 전국에 공고된 이번 선거는 나까소네내각에 대한 첫신임투표라는 점과, 일본에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정당투표 성격의선거라는 점에서 앞으로일본정국을 가늠하는 계기가될것같다.

이번 참의원선거의 改選의석수는 지역선거구 76席、비례대표50席 모두 1백26席이다.

일본의 정국은 지난 80년 衆·參議員 동시선거에서 오히라(大平)수상의 急死로 自民黨이압승、3년동안 자민당이안정정권을 유지해왔다.

나까소네수상이 권좌에 오른지 7개월만에실시되는 이번 참의원선거결과、자민당의 의석수가 현상태를 유지하면 커게 문제가 없겠지만 자민당의석분포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후꾸다(福田) 고오모또(河本)등 당내비주류들은 나까소네수상에 대해 선거패배의 책임을 추궁할 기세로 있어 일본정국은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이번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려 여야백중시대의 재현을 노리고 적극적인 대결자세를 굳히고 있다.

후보자가 아닌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제선거는 93년간의 일본선거사상 처음실시되는것으로 유권자들에게 다소 혼란을 주는듯하다.

47개 都·道·府·縣의 선거구는 종래대로후보자개인에대해 투표하는 한편 비례대표는 정당이름을 기입함으로써 총득표수에 따라비례로 의석을 배분한다.

8천만 일본유권자에게 낯선 이제도때문에무효표가얼마나생길지도하나의관심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의 방지를위해 선거포스터와 슬라이드등을 통해 계몽하고있는데 새제도에대한 해설과 슬라이드만도4천만매를 만들어살포 하는등 참의원선거실시에 자그만치 2백66억엔의 세금을 쓰고 있다.

선거운동은 철저한 공영제로개인의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권자가 黨名을 기입하는 이번비례대표제 선거는 선거의공정을 위해 개인연설과 가두연설、호별방문등을 일체금지、정당의 공영선거운동에만 국한시켰다.

또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위해 무소속출마를금지하고▲현직의원5명이상과▲후보자10명이상을 낸 단체에 한해서 출마할수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자민당 사회당 公明黨 民社黨 공산당등 5대정당이외에 23개의 政派가 쏟아져나와 난립하고있다.

이들 미니정당들은 조직과 자금이 없기때문에 갖가지 색으로 그단체의 특징을 살려 유권자들에게 政派이름을팔고있다. 福祉黨은 전국12만명의 신체장애자를 동원하여 휠체어에 福祉黨이라는 간판을 달고「움직이는 포스터」작전을 쓰고 있다。

일본의 參議員선거가 오는26일 실시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나까소네 내각 출범7개월만에 처음 실시되는 國政선거라는 점에서 自民黨에 대한 국민의 신임度가 판가름된다

이번선거에서 여야각당은 나까소네수상의 군비확장과 행정개혁을 최대의 선거이슈로삼고있다.

집권자민당은 일본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적극참여하고 재정재건과 행정개혁을 감행할 것을 선거이슈로 내세웠다. 이에반해 사회당과 공산당은 나까소네내각의 군비확장노선은 전쟁에 휘말릴 요소가 있다고주장、나까소네수상의 매派노선에 제동을 걸기위한 여야간의 백중세확보를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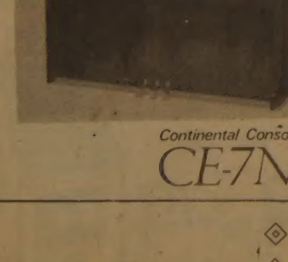
군소정파가 내세운 정책은 다양하다。봉급자를 중심으로 모인 샐러리맨黨은▲물가가 오르는데 비례해서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인하할것▲30년이상의 봉급자에대해 1년동안 無稅制혜택을 줄것등을 제의했다。淨靈會는 弊의 해독에 의해 인간이 파멸되고 있다고지적、식품첨가물、비료、살충제、농약의 사용금지를 내세웠으며 교육자들이 모인 敎育黨은 청소년의 非行방지대책을 내세우는등 1黨1政策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안간힘을다하고있다.

비례대표제선거제에있어서 제일 큰관심대상은 비례대표자의 순번이다. 자민당은 유권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위해 하야시(林健太郎)前東京大총장을 비례대표제2번순위로 추천해 놓고있으며 야당도 사회 공명 民社등은 문화인 언론인 학자들을 대거기용,上位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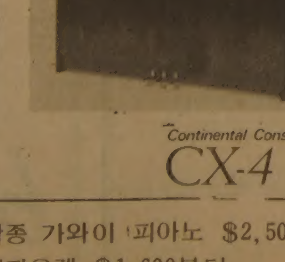
자민당 상위10위이내에 다나까派가 7명이나 들어있어 당내 각파에서 불만이 터지는등 비례대표제의 순번을 에워싼 內紛이 일고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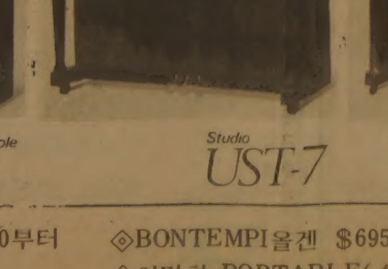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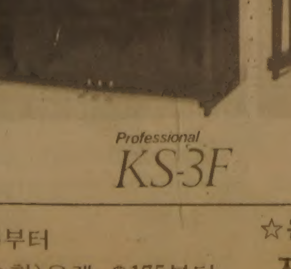
Continental Console
CE-7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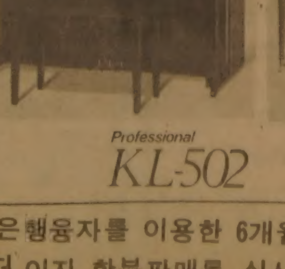
Continental Console
CX-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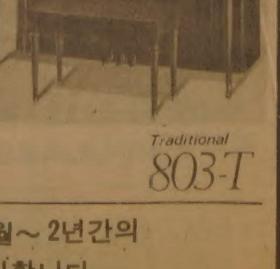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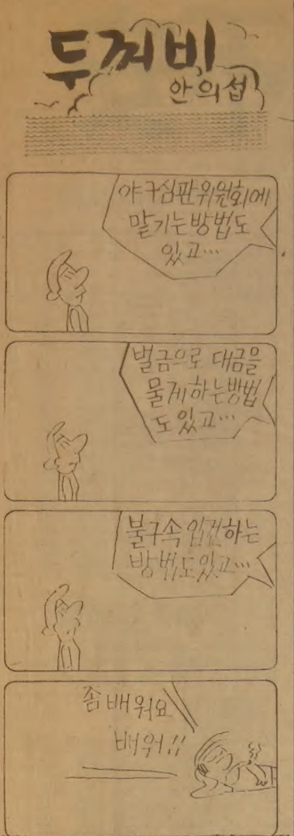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운동장暴力 용납못할일" "지나친 응징 아닌가"

金振榮감독 拘束과 시민들 反應

「프로性」외면한 法집행 反 / 例外안돼… 一罰百戒로 贊

◇프로야구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불상사의 주인공 金振榮씨가 지난 1일하오 잠실구장에서 심판에게 항의를 시작했을때의 모습.

프로야구 三美슈퍼스타즈감독 金振榮씨 (47)구속사건은 만만치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처럼 뿌리를 내려가는 운동경기의 프로화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는 견해가 많았다.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넣어 국민적경기로 발돋움하는 싯점에서 그같은 충격요법은 현명치 못하다는 여론인것이다. 운동장의폭력은 어떤이유에서든 용납할수없다는 견해를 갖는사람들도 「처벌」의 방법론에서 이의를 말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듯 프로팀관계자들은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겨냥하는 제스처나 고의적인 연기를 잘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생명처럼 돼있는만큼 도가 지나칠경우 자체내의 응징으로 처리케하면 되는것이지 순수아마추어리즘을 다루는 눈으로 프로를 속박하기시작하면 프로의 성장은 한계가있는게 아니냐는 논리가 나온다. 金감독구속을 지나친 단죄로 보는이는 金감독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우려가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다는점을 지적한다.

프로야구팬인 鄭運求씨 (40·회사원)는『프로팀의 감독이라면 승부근성이 몸에밴 승부사로서 과도한 제스처나 어필이 오히려 관중에게는 경기외적인 자극제가 될수있다』면서『취미로하는 아마추어가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프로적요소를 감안하지않은점은 법집행의 유연성, 형평성이 깨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J부장판사(43)는『프로는 곧 돈인만큼 프로야구위원회에서 벌금제재로 자체처리하는방안이 온당했을것같다』면서『외국프로경기에서도 감독과 심판사이에 충돌사고가나 고액의 벌금이나 장기출장정지등 자체징계로 끝나는것으로 알아온 국민들로서는 이번 金감독 구속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같다』는 견해를보였다.

李啓一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金감독의 행동역시 의도적으로 남을 상해키위한 폭행은 아니었던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설령 金감독의 행동이 다소 격렬했다고하지만 야구장내의 룰로 제재할수 있는것인만큼 야구계의 자율적인 처리에 맡기는것이 바람직 했을것 같다』고 말했다.

金감독의 행위가 과연법적으로 구속사안에까지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반론이많다.

文珍鐸변호사는『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얼굴에 침을뱉고 또는 뺨을때리는등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나지않은 폭행은 형법상의 단순폭행죄에 해당돼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수가 없다』고 밝혔다.

文변호사는『다만 상습 또는 야간에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처벌할수있다』고 전했다.

K변호사는『구속방침이 세워진뒤 법조문을 꿰어맞춘 인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앞두고경기장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수없다』면서도 국가관과 엄격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아마추어와는 달리「돈」이 흥미를 더하는 프로의 속성을 전혀무시하고「목적적」으로 프로 감독을「구속한것은 성급하고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을보였다.

이에반해 金감독 구속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심판판정에 대한 불복을폭력으로 해결하려는것은 법에대한 도전』이라며『경기장 폭력이라고해서 법이 관대할수는 없고 오히려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입장이다.

李炳勇 대한변협회장은『한사회의 질서의식을 재는 바로미터는 무엇보다도운동선수나 감독이 경기룰을 잘지키느냐에있다』고전제,『경기장폭력행위라고 해서 법의집행에서 예외가될 수는없다』는주장을했다.

야구委, 百만원벌금

한국야구위원회는 3일 심판 폭력사건과 관련, 金振榮감독에게 1백만원의 벌금으로 징계를 내렸다.

金감독 收監

서울江東경찰서는 3일 상오 야구장에서 심판판정에 불복, 폭행소동을벌인 프로야구 三美 슈퍼스타즈감독 金振榮씨(47)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경찰은 2일하오 9시50분께 부산九德경기장에서 롯데와의 경기가 끝난직후 三美측 덕아웃뒤 복도에서 金씨에게 수갑을채워 연행하려하자 三美선수들이 흥분, 몸으로 가로막는바람에 기동경찰이 동원되는등 한때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수갑을 풀고 金씨를 三美팀숙소인 부산 플라자호텔까지 임의동행형식으로 데려가 이곳에서 하오11시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이폭행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即審피의자 억울한일 없도록"

治安本部지시 가벼운 犯則행위 通告처분 확대

치안본부는 3일 즉심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즉결에 넘기기전에 경찰간부가 사전심사를 하라고 전국경찰에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지시에서 각경찰서 보안과장급이상 간부는 피의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억울한 사정을 들은후 이를 시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위반사실을 다시 검토, 가벼운 범칙행위는 통고처분을 확대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다시 최초적발자를 불러 사실을 재조사해야하는데 이같은 조치는 일선지파출소에서 적발한 경찰관이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무리한 일이 일어나는것을 시정하기위한 것이다.

脫稅도우고 돈받아 세무서원 구속

【蔚山】蔚山경찰서는 3일 양도소득세의 면세규정을 납세자에게 알려 탈세를 도와주고 5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蔚山세무서 재산세과 이두용씨(31·현 부산東萊세무서 근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지난81년 7월21일 蔚山市方魚洞 403 이동성씨(68)가 같은 번지에 있는 임야 1천8백35평을 5천6백만원에 현대미포 조선소에 팔려고하자 땅소유주인 이씨에게『부동산 소개업자인 박해동씨 (44·蔚山市方魚洞 288)에게 1차로 평당 3만원에 이땅을 넘긴후 박씨가 법인체인 현대미포 조선소에 다시 평당 3만원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면세규정』을알려주어 탈세를하도록한후 5백40만원을 받았다는것.【聯】

輸出조건 輸入참깨 13억상당 市中유출

【釜山】부산지검 특수부 金柄南검사는 3일 不二홍산회장 太永浩씨 (62·서울江東區蠶室 우성아파트 21동103호) 동사 상무 林相澤씨 (39) 상인 宋金壹씨 (42·부산東萊區蓮山4洞645) 등 5명을 특가법·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太씨등은 국내에서 톤당 4백10만원선에 거래되고있는 참깨가 동남아일대에서는 7분의1 가격인 58만원선 (7백50달러) 인데도 농어촌개발공사 외에는 수입할수없음을알고 지난81년2월 일본인 이라이·노부스끼씨와 짜고 일본에서 참깨를들여와 기름을 짜 수출한다는 허위위탁 가공무역 계약을 맺은후 참깨 5백15톤 (싯가21억원상당)을 일본에서 들여와 이중 3백15톤 (싯가 13억원)을 시중에 유출했다는것.【聯】

醫保진료비 明細書조작 過多청구 醫師구속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3일 閔泳龍외과의원(서울城東區中谷洞230의10) 원장 閔泳龍씨 (36)를 사기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閔씨는지난해9월 췌장염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吳永植씨 (34·서울城東區中谷洞252)의 진료카드에 실제 치료횟수를 2차례나 늘리고 투약량도늘려 허위기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27만여원의 보험금을 더받아낸것을비롯, 지금까지 같은수법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부터 55명의 환자에대한 보험료 8백여만원을 더받아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閔씨가 지난해7월부터 진료한 의료보험환자 7백23명의 진료일지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압수, 여죄를 캐고있다.

폭행戰警 2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鷺梁津경찰서는 3일 술에취해 행인등에게 행패를 부린 동경찰서 정보과소속 朴熙台상경(22)과 상종파출소소속 金學春수경(22)등 전경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高麗병원 院長집에 돈요구 협박전화

20여차례 "5백만원 내라"

지난1일과 2일 이틀동안 서울鍾路區平洞108 高麗병원 원장 趙雲海씨(58)집에 현금5백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20여차례나걸려와 경찰이 수사중이다.

1일하오2시3분께 趙원장집에 30대중반의 남자가 첫번째 협박전화를걸어『외국도피자금 5백만원이 필요하니 모두 1만원권으로 신문지에싸서 하오5시까지 東大門실내스케이트장근처 준설룸으로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는것.

범인은 또 이날하오3시께 전화를걸어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高麗병원 재무과장 權교택씨(35)가 받자『경찰에 알리지말고 혼자 나오라. 우리애들이 나가 망을 볼것이다』고 말했다.

전화를받은 병원측은 이 사실을 東大門경찰서에 신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돈을 갖고나갔으나 범인은 나타나지않았다.

범인은 이날 하오5시40분이후에도 모두 8차례나 병원과 집에 협박전화를걸어 돈을 갖고 나갈 장소를 3군데나 바꾸어가며지정, 趙씨 가족들이 나갔으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뒤에도 10여차례 전화를걸어 돈을 가져올 장소를 계속 지시했으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고려병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범인이 병원과 관계된 원한이 있거나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협박전화를 했을 가능성등 두갈래로 수사를 펴고있다.

高麗병원에는 지난 81년2월에도 金모씨(25·당시 광부·수감중)가 돈을 요구하며 1층화장실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1명이 중상을 입은것을 비롯, 지금까지 두번이나 거액을 요구한 협박사건이 있었다.

建設部과장 구속

돈받고 機密넘겨, 돈준 회사대표도

서울지검 특수3부는 3일 건설부 漢江홍수통제소 전기통신과장 鄭鎬永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등혐의로, 대진전기통신(주)대표 金相永씨(44)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하는 한편 한국전자공업(주)대표 鄭一讚씨(50)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鄭鎬永씨는 건설부수원국 방재과통신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중순께 대진전기통신대표 金씨로부터 건설부의 82년도 도로재해 통신설비용사의 사업계획, 예산및 발주예정일등을 알려주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48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지난 4월말까지 金씨와 鄭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백98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반달곰 웅담競賣 豫定價미달 流札

雪嶽山에서 숨진 반달곰의 쓸개(웅담)가 3일하오창경원에서 경매에 부쳐졌으나 예정가격에 미달돼 유찰됐다.

이날경매는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한약상등 모두 10명이 등록, 이들중 6명이 응찰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해 3차례에 걸쳐입찰을 했으나 결국 유찰됐다.

다음 경매는 9일께 있을 예정이다.

억울한獄살이 在日동포 위자료로 395만엔 받게돼

【東京=聯】일본오오사까(大阪)지방법원 민사11부는 2일 도둑명을 쓰고 日本검찰에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한 在日한국인동포 朴正剛씨 (27·大阪거주) 에게 모두 3백95만엔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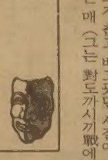
오오사까지방법원은 이날 朴씨가 경찰의 협박과 유도신문에 의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하게된데따른 일본정부와 나라(奈良)縣을 상대로한 7백9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이유있다』고 인정,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경찰이 朴씨를 범인으로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필요한 증거 수사등을 충분히하지않은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하고『검찰도 보충수사를 소홀히하여 잘못된 기소를한것은 公權力행사의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朴씨는 지난79년8월22일 나라縣 기따가쓰라기(北葛城)郡 간마끼(上牧)邑소재 철공회사에 친구2명과 함께 침입, 회사금고와 회사앞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부수고 2만5천엔을 훔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80년4월 무죄판결을받고 석방됐다.

「웃기기」挑戰 챔피언出身 코미디배우 金煥珍

山戰水戰 경험…「신선한一擊」자신



우리사회에서 「웃긴다」라는말은 조롱과 멸시와 분노의 표현에 가깝다. 그래서 남을 웃기는 일을 業으로 삼는 코미디언의 직업은 날로어려워져가고있다. 어설피 웃겼다가는 그야말로「웃긴다」고 백안시되게 마련.

맨주먹으로 세계정상의 길을헤쳐나간 전 WBA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金煥珍씨(29·사진)가 사람들을 웃겨주겠다고 코미디배우로 인생항로를 바꾸었다.

그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그많은 매(그는 對도까시끼戰에서만 2천17대를 맞았다)를 맞아가면서 챔피언을따냈듯이 이제는 이시대와 사람들의진부한 日常性에 신선한일격을가하기위해 새로운 스파링을 시작한셈이다. 그의 상대는 세계적으로 웃음이 인색한 이나라 사람들. 웃기기위한 그의 전략은 「권투」만큼이나 치열하다. 그는 日常性을 극복하기위해 우선 日常性에 접근해 들어간다.

호텔로비나 다방을 어슬렁거리며 선을 보는 남녀와 그들의 가족들 옆에 자리잡고앉아 여자들의 새침데기, 남자들의 흉물떨기, 부모들의 인품잡기등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여겨보아둔다. 시장바닥이나 골목에서 싸움꾼들의 다툼, 말리는 사람들의 동작과 말투등도 머리 속에 영상으로 메모한다. 이같은 일상선에의 접근과 관찰은 과장기법, 또는 생략기법을 거쳐 그의 코미디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코미디언으로서의 그의 가장 큰자산은 그가 無名의 上京청년으로부터 세계챔피언을 따내기까지 겪은「山戰水戰」이다. 그는 의식주의걱정에서 벗어난 지금도 만취할 때는 그 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찔찔흘린단다. 살아가는 일의 아귀다툼과 그 틈바구니에 끼여드는 의리와 인정의세계를 그만큼 처절하게 체험한 젊은사람은 드물것이다.

어설픈 웃음에 면역이된 사람들을 환하게 웃기는 일이「권투」에서 챔피언되는 것보다 더어렵지않을까 그는 걱정이 태산같다.【金薰기자】

5行뉴스

◆설악산 入山통제 해제

【束草】지난4월1일부터 실시됐던 국립공원 雪嶽山에대한 입산통제조치가 현충일 연휴를맞아 4일부터 전면해제, 일반등산객의 입산이 허용된다. 雪嶽山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3일 산불방지를위해 입산을 금지시켰던 雪嶽山의 천불동~대청봉간, 설악동~미등령~백담사간, 오색리~대청봉간, 장수대~대승령간등 4개 등산로에대해 입산을 허용한다고 밝혔다.【聯】

◆남강서 국교생2명익사

【晋州】2일 하오6시30분께 晋州市新安洞 서장대아래 남강에서 친구들과함께 수영을 하던 晋京국교3년 김명윤군(10·晋州市晋京南洞326의1)과같은학교 2년 강해석군(9·晋京北洞82)이 수영미숙으로 물에 빠져 숨졌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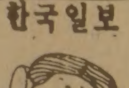
◆女中生 냇물에서 失足死

【木浦】2일 하오 4시30분께 전남 海南郡三山面院津리 용암부락앞 냇물에서 손을씻던 海南여중2년 申美京양(14)이 실족, 물에 빠져 숨졌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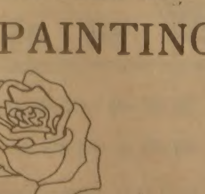
車에얽힌犯行 추정 聖堂살인사건 수사

【光州】속보=전남光州市北區北洞 천주교성당 사무장 朴鍾烈씨(43)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光州西部경찰서는 3일 朴씨가 3개월전에 구입, 매일밤 자기집 대문앞에 세워둔 봉고승용차의 카세트와 테이프등을 여러차례 도난당해 최근밤이면 자동차에 도둑이들것에대비, 많은 신경을써왔다는 새로운사실을 밝혀내고 자동차에 얽힌 범인들의소행으로보고 수사에 나섰다.【聯】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한국일보

533-2361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6S 2T9
☎ 923-2819

NEW WHITE ROSE PAINTING

아파트먼트 페인트전문
1 BED ROOM $185.00
2 BED ROOM $225.00
3 BED ROOM $265.00
새봄맞이 단장을 원하십니까?
집페인트—스페샬가격
☎431-2019

우송서비스 신설

주간女性
여성독자증가에 따라 가격인하
매주 장보기가 힘드신 분을 위해
집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1권당 $3.00(송료 포함)(종전가격 $3.40)
아래 신청서를 기입, $55.00(최저 20권 요금중에서 $5.00할인)
수표와 함께 우송해 주십시오. (크레딧카드로도 지불가능)
주간여성 신청서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NAME
ADDRESS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 )
수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넘버 만기일

경북·계성중고교
합동친목야유회
이번에 위에 양교 동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동친목야유회를 갖고 바쁜 이민생활중에라도 하루를 다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즐겁게 보내기로 하였읍니다.
위 학교 동문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가족동반하셔서 마음껏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6월18일(토)오전11시
*단, 우천시에는 일주일 연기함
장 소 : ALBION HILL CONSERVATION PARK (at BOLTON)
(점심식사는 각자 지참)
연락처 : 654-3358 MR. 박
278-9886 MR. 이
*다른학교 동문회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6월10일 이전에 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벼락땜질… 전력不安"

대통령盃축구 우승도전하는 代表팀

老兵 대거퇴진시킨후 急造
主戰 슈퍼리그출전해 피로

한국대표 축구팀은 그어느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제13회 대통령배대회우승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선배들이 세워놓은 훌륭한 성적(12차례대회중 8회단독우승 또는 공동우승)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위해 선수들은 국가대표선수의 자부심을 갖고 임전태세를 가다듬고있으나 전력이 불안, 우승은 벅찬과제란 것이 축구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국대표팀은 내년도 LA올림픽예선에 대비, 국제경기경험이 풍부한 노장급을 대거퇴진 시키고 대학선수주축으로 4월16일 급조된데다가 주전선수들이 슈퍼리그 출전으로 피로에 빠져 국가대표팀 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있다.

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崔淳鎬 李吉龍이 보강됐으나 이들이 어느정도 팀에 기여할지 숙제다.

趙潤玉감독도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심정』이라며 한국팀의 불안한 현실을 감추지 않았다. 趙감독은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절망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의 취약점은 연습량이 부족한점 외에도▲신진센터포워드 盧仁鎬와 윈쪽날개 申東喆의 컨디션부조(不調)▲수비주력인 金漢奉 鄭龍煥 安柄泰 趙允煥의국제경기경험부족▲수비진의호흡불일치등이다.

한국의 코칭스태프는 득점능력이 있는 崔淳鎬를 최대로 이용하는 작전을 펼칠 구상인데, 몸이 약한 崔를 중요게임에만 집중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와 체력이좋은 盧仁鎬와 돌파력이있는 李相龍도 崔淳鎬를 돕게하고수퍼리그서 각광을받은 李吉龍을 폭넓게 활용할계획.

◇한국대표 결단식에서, 崔淳永 축구협회장이 張榮根단장에게 단기를 주고있다。

◇한국대표팀

위치	이름	소속	신장	체중
단장	張榮根			
감독	趙潤玉			
코치	李世淵			
GK	崔仁榮	서울시청	184cm	77kg
″	李柱翰	동국대	184	74
FB	朴暻勳	한양대	172	68
″	李中甲	명지대	172	65
″	金平錫	광운대	178	70
″	金漢奉	주택은	179	74
″	趙允煥	명지대	181	73
″	安柄泰	포철	180	72
HB	李泰昊	대우	173	68
″	曺敏國	고려대	181	77
″	鄭龍煥	고려대	178	72
″	李興實	한양대	170	65
″	李台熙	국민은	175	70
FW	邊炳柱	연세대	174	66
″	李太燁	국민은	180	70
″	申東喆	명지대	170	65
″	盧仁鎬	″	182	82
″	金鍾煥	서울대	165	62
″	崔淳鎬	광운대	185	80
″	李吉龍	포철	172	62
″	李相龍	한일은	169	63

◇油公프로팀

위치	이름	출신교	신장	체중
단장	趙圭鄕			
감독	李鍾煥			
코치	金正男			
GK	吳連敎	한양대	185cm	80kg
″	朴英洙	경희대	176	72
FB	李章洙	연세대	177	73
″	辛允基	영남대	172	67
HB	崔景植	건국대	180	76
″	崔基奉	산업대	173	75
″	金明寬	광운대	178	74
″	李康助	고려대	168	63
″	金剛男	″	170	64
″	金成男	″	″	″
″	白南秀	한양대	171	65
″	金龍海	마산공고	170	62
FW	黃石根	동래고	178	76
″	金昌浩	전남기공	174	68
″	金鏞世	중동고	192	84
″	辛文善	연세대	173	67
″	朴潤基	산업대	170	64
″	金錫垣	고려대	174	64

한국·제노아 첫판

大統領盃축구 오늘개막 (하오3시)
代表·油公 어제 결단

제13회 대통령배 쟁탈국제축구대회가 오는(4일) 하오 3시30분 한국대표와 이탈리아(제노아)의 개막전으로 열전에 들어간다。

10개국 11개팀이 출전하는 이번대회는 A、B조로 나뉘어 서울을 비롯, 水原 大邱 釜山 全州등지를 순회하며 열전을 펼친다。A조에는 한국대표、이탈리아(제노바)미국、태국、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등 6개팀、B조에는 한국프로팀 油公、뉴질랜드、네덜란드(PSV아인트호벤)가나、수단등 5개팀이속해있다。

대회는 예선리그를 펼친뒤 각조상위 2개팀이 준결승전을 벌이며 오는17일 서울운동장서 결승전과 3·4위전을 갖는다。

준결승전서 무승부일 경우 1회에한해 30분연장전을 벌이며 여기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승부킥으로 승자를 가린다。결승전은 1회 연장전(30분)후 무승부가되면 공동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팀중 나이지리아가 가장먼저 한국에왔으며 2일에 美國、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가나가、3일에는 이탈리아 제노아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泰國이 도착했다。수단은 7일 아인트호벤과 첫경기를 갖기때문에 6일도착한다。

한편 이번대회 우승을 목표로 출전하는 한국대표팀 결단식이 3일하오2시 축구협회 회의실서 베풀어졌다。이 자리에서 崔淳永대한축구협회장은『한국 대표팀은 대표팀의 명예를걸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성적을거두어 한국 축구중흥의발판이 마련되도록 최선을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대표팀은 리버사이드 호텔、油公은 자체합숙소에머물면서 임전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李源京 체육부장관 가나체육장관 접견

李源京체육부장관은 3일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가나팀을이끌고 방한한 아마르카이 체육성장관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이자리에서, 아마르카이 장관은 가나에는 태권도가 성행、1만5천여명의 경기인구가 있다고 밝혔다。

아마복싱聯 집행위원회 22개국 참가 서울 개최

세계아마추어 복싱연맹(AIBA)집행위원회가22개국 23명의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5일 플라자 호텔에서 아시아、아프리카、유럽、북미、남미、오세아니아등 6개지역 사무국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 열린다。

1백39개 회원국 가운데 회장단9개국및 위원13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하는이번 집행위원회는 오는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11월 도미니카)및 내년 LA올림픽대회 운영문제와 심판진 구성등을다루게된다。

이번 집행위원회는 첫날 지역사무국회의에 이어 6일에는 부회장단회의、8·9일 이틀간 집행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회의가 끝난다。

AIBA의 정기총회는 매4년마다 한번씩 열리며 40개국 43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매년개최된다。

J테니스 常備軍1차평가전 끝내
崔城薰등 16명1위

86、88대비 테니스 주니어국가상비군 1차평가전 마지막날경기(3일·장충코트)에서 崔城薰(전남기공) 李相特(울산공고) 李靜明(안양고)등 16명이 승리를 거두고 각조 1위에 올랐다。

이날 崔城薰은 金東根(청주상)을 2─0으로 완파、3전전승으로 남자A조 1위를 차지했으며D조의 李相特도 朴昊教에 2─0으로 승리、3승을 거뒀다。

여자주니어의 호프 李靜明과 金一順(안양서여중)도 3승으로 가볍게 C、G조의 1위에 올랐다。

남녀 각8개조로 나뉘어 리그를 벌인 이번대회에서는 각조1위16명을 선발하여 7월4일부터 한·일주니어국가상비군 2차평가전을 갖는다。

◇각조1위

▲남자부=崔城薰(전남기공) 金載湜(울산공고) 李相允(영남고) 李相特(울산공고) 李成浩(계명대) 裵南主(선린고) 鄭基柱(마포고)

▲여자부=李順德(주문진여종) 崔淑(주문진여종) 李靜明(안양고) 金蘭姬(주문진여종) 許美子(선명여상) 林淑子(주문진여종) 閔美香(정화여고) 金一順(안양서여중)

蘇聯版비틀즈 人氣
젊은이들 熱狂시켜

【UPI=聯合】비틀즈가 소련에서 인기를 얻고있다。물론 진짜 비틀즈가 아닌 소련판 모조비틀즈。진짜 비틀즈가 세계를 휩쓸때 소련은 그들의 입국을 허가하지않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소련판 모조비틀즈인 비트그룹 『뷸릭』은 지난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수도 바쿠에서 청중연、소련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다。

533－2361

멕시코의외로強力

세계青少年축구 게임주도권 濠洲와 비겨

【멕시코시티=安春燦특파원】멕시코와 濠洲는 3일 막을올린 제4회 국제청소년축구대회개막전(예선A조)에서 1─1로비겼다。

한국은 4일상오6시(한국시간)토로카에서 강호 스코틀랜드와 예선A조 첫경기를 벌인다。멕시코·시티 아즈테카경기장서 9만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벌어진 홈팀 멕시코와 濠洲의 대전서 멕시코는 전반16분 HB 마르셀리노·베르날의 슛으로 선제골을 올렸으나 후반26분 濠洲의 프랭크·파리나에게 헤딩골을 허용했다。

멕시코는 예상을 뒤엎고 전반 시작하자마자 게임의 주도권을 장악、개인기와 볼·컨트롤에서 濠洲를 압도했다。

멕시코는 골을 넣을수있는 두차례의 결정적인찬스를 놓쳤다。

후반 濠洲는 강한체력을 바탕으로 수비를 강화、멕시코의 공격을 차단했으며 GK 안소니·프랑켄의 활약이 돋보였다。

◇제1일전적

▲A조

멕시코1(1─0 0─1)1호주

오늘부터 9日熱戰
青龍旗 중고野球

제38회 青龍旗 중고야구선수권대회가 4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12일까지 9일간 계속된다。

이번대회는 각시도 지역예선을 거친 중등부18、고등부20개팀이 출전、토너먼트로 패권을 겨루는데 현충일인 6일과 결승인12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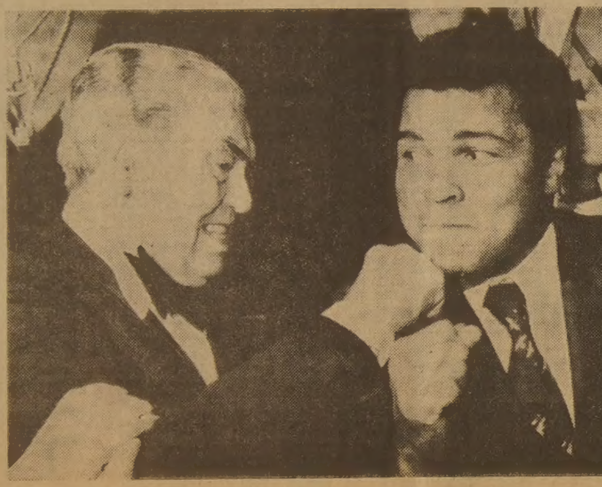
대회첫날에는 10시부터 중등부게임과 培明高─心石綜高전이 이어지며 하오7시 야간경기에서는 지난대회 준우승팀 天安北一高와 금년도 대통령기대회우승팀 光州一高가격돌한다。

지난해에는 趙啓顯의 群山商高가 天安北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다。

에버트、決勝진출
佛오픈、예거制壓

【파리聯=聯】크리스·에버트·로이드는 2일 파리 만달러의 프랑스오픈·테니스 여자단식준결승에서 안드레아·예거를 세트스코어 2─0(6─3、6─1)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유고슬라비아의 미마·요스벡과이대회5번째우승을놓고일전을벌이게됐다。

에버트·로이드는 지난 74、75、79및 80년 이대회 여자단식부문을 석권한바있다。


◇뎀프시와 알리의 決鬪 지난1일 87세로 세상을 떠난 프로복싱 前세계 헤비급 챔피언 잭·뎀프시(左)가 생전에 그의생일파티에참석한 무하마드·알리와농담하고있다。【UPI】

KBO、벌칙강화

1차警告·2차퇴장
누구든 경기중 審判판정 어필하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金振榮감독 사건을계기로 그라운드 폭력을없애기위해 심판원에 대한 어필 행위에대한 벌칙을대폭강화키로했다。

경기중 볼·스트라이크、페어·파울、아웃·세이프에 대한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인것으로 누구도 어필할수 없다는 KBO는 이사항을 지키지않는 감독、코치、선수등에 1차경고、2차퇴장을 명하도록했다。

또 룰 적용의 잘못에 대한 어필도 감독만이 할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는 마찬가지의 제재를 가하게된다。KBO는 또 경기중 공격과 수비측 선수가서로 기구를 집어주거나 잡담을 나누는 행위를 엄하게 규제키로했다。

프로야구

三美선두 獨走다져
張明夫끈기로 롯데제압

張明夫의 끈기로 三美가 연패의 수렁을 탈출、선두독주태세를 다지고있다。三美는 2일밤 釜山원정경기서 張明夫의 두뇌피칭으로 고비를 넘기며 3회초 2번 朴俊英의 솔로호머로잡은 리드를 고수、4─1로 승리했다。三美는 22승 14패를기록、2위 해태를 2게임차로 떨어뜨렸다。

張明夫는 이날로 20게임째등판、15승4패1세이브를 기록했다。

三美는 4회말 롯데5번 金貞洙에게 3루타를 얻어맞고 6번 柳斗烈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허용했으나 5회초 발빠른 趙興雲이 중전안타、2盜、후속내야안타와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올렸다。三美 9회초 마지막공격에서 3번 李善雄의 2타점 2루타로 2점을 추가、승리를 굳혔다。

◇2일전적

▲부산

삼미 001 010 002─4
롯데 000 100 000─1

▲홈런=朴俊英(3회·삼미)

◇중간순위 〈2일현재〉

	팀	승	무	패
①	삼미	22	0	14
②	해태	18	1	14
③	OB	18	0	18
④	삼성	15	1	18
⑤	롯데	16	0	20
⑥	MBC	16	0	21

徐KBO총재 사과
팬에 죄송

한국야구위원회(KBO) 徐鐘喆총재는 3일 金振榮三美감독의 구속사건과 관련、『어린이를 포함한 야구를 사랑하는 팬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와유감의뜻을밝혔다。

徐총재는 앞으로 이와같은 불미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선수、코치、감독、심판등 모든 프로야구종사자들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경우 강력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徐총재는『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질서확립을 위해 이번사건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는데는 공감하나 야구계자체의 수습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힘을 빈 사태로 발전케된데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徐총재는 뿌리를 내리고있는 프로야구에 다시발전할 기회를준다는 의미에서 당국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땅끝에서 오다 〈72〉

金成一 作 / 宋龍 畵

시간과 시간 사이 ④

다음날 다시 수트케이스를들고 출근한준호에게 본사의 직원이 또 한가지 소식을 전해주었다。영등포경찰서의 김 갑재 경사로부터 임 준호에 대한 신원조회가 왔었다는 것이었다。준호는 생각난듯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그는 교환에게 영등포 경찰서를 부탁하였다。전화는 이내 걸렸다。

『아、강력계의 김 갑재 경사님을 부탁합니다』

김형사는 마침 자리에 있었다。그는 시계를 보았다。열시가 좀 넘어 있었다。

『아、수고하십니다。전 리진물산의 임 준호입니다。신원확인을 하셨다구요』

『회사에 나오셨습니까? 피곤하실텐데。뭐 형식적인 것입니다만 언제나 확인、확인、또 확인하는것이 저희경찰의 하는 일이지요』

『저… 혹시 점심때쯤 잠깐 시간을 좀 내어 주실수 있겠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네、점심시간이라면 별다른일은 없습니다만。이리로 오시겠습니까?』

『저…이리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빌딩 지하실에 경양식 잘하는 집이있는데…』

『공무원이 점심대접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아실텐데요』

『제가…수사상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린다고해도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가지요。어디로 가면 되지요?』

『네、리진물산빌딩의 지하실로 오시면 여의도라고 하는 이름의 경양식집이있습니다。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네、열두시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을때쯤 프로젝트 본부장이 부장들과함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임대리 여기있었군。어때 출장준비는 다 되었나?』

『네、아직 미혼이니까 뭐 간단하지요』

『아、임대리는 참 아직 미혼이었지。어때、금년엔 장가를 들게 되나? 도대체 금년에 몇살이 된거지?』

준호는 좀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었다。

『…서른 셋이 됐읍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군그래。옛날 같았으면 손자를 볼 나이가 아닌가。서른 셋이면 범띠렸다…내가 좀 골라 줄까? 이런 늙은 총각을 누가 데려가지?』

타자기의 키를 두드리고 있던 여직원들이 까르르 웃고 있었다。

『요즘은 신랑감도 너무 늙으면 유행이 지났다고 바겐세일을 해야 한다던데』

또 한번 폭소가 터졌다。본부장은 주위에 기다리고있는 부장들을 둘러보고는 다시 준호에게 말했다。

『난 그 서류 준비 때문에 나가야겠는데…오후 다섯시 좀 날 좀 만나지。몇가지 일러둘 이야기도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나가자 준호는 또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김갑재 형사를 만나고 나서도 몇가지 볼일을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

땅끝에서 오다 〈73〉

金成一 作 / 宋龍 畵

시간과 시간사이 ⑤

열두시가 가까와오자 준호는 카피실로 가서 이세원의 이상한 텔렉스를 제록스로 복사했다。그리고지하실 경양식집 『여의도』로 곧장 내려갔다。

얼마 안되어서 김갑재 형사는 들어섰다。여전히후줄근한 모습이었지만 그완강한 얼굴모습으로 인하여 역시 만만치 않은 인상을 주고있었다。그들은 서로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하룻밤을 함께새우는 사이에 어느새 꽤친밀해져 있었던것이다。

『예정대로 오늘 출국하십니까?』

『네、그렇습니다。비자가 저녁 늦게까지는 나올것 같습니다。리비아 비자가 워낙 까다롭지만 리진물산의 여권담당들도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웨이터가 다가왔다。김형사는 카레라이스를 원했고、준호는 카레라이스 둘에 맥주를 추가시켰다。

『…여자에게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법입니다。언젠가는 입을 열게 되겠죠』

『김경사님께서도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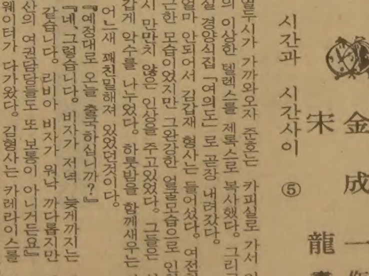
『그건 모릅니다。사건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경찰관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장래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나 같은거군요』

『잘 아시는군요。그런데……주시겠다는 정보는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준호는 복사된 텔렉스 내용을 꺼내어 테이블위에 놓았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주로 많이 쓰는 텔렉스라는 것이죠。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국내외의 기업체나 지사간에 서로 주고 받는 교신방법이지요。그런데……이 세원이 파리의 샤를·드골공항에서 더파처게이트로 들어간 것이 현지 시간으로 1월3일 오후1시 이전입니다만、이 텔렉스는 1월4일 12시35분에 파리에서 발신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어서 준호는 거기 찍혀있는 텔렉스 용의 부호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파리지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전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문자와 숫자들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점입니다』

『?』

『우리 회사의 모든 오다 넘버、부품 넘버、서류 넘버들을 조사해보았으나 이러한 넘버들은 없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알리는 암호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어째서 그는 임선생에게 암호로 통신을 보내야 했을까요?』

『글쎄 말씀입니다。아마 주위의 누구에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만、암호란 받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 아니겠읍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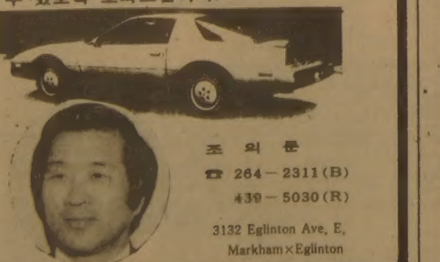
김형사는 뚫어질 듯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국방문에의 초대

해외교포에게 오늘의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 드리고자 새마을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카나다교포를 관광및 산업시찰여행에 초대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인원미달때는 취소됨〉
⊙대상 : 카나다 이민온지 6년이상자
⊙출발예정일 : 1983년 7월중순
⊙기간 : 약2주간(체제비 일체부담)
⊙항공료 : 자비부담(대한항공 이용)
⊙신청요령 : 소정양식엔 의거 6월30일까지 신세계여행사 (536－2155)에 항공료 첨부, 신청바람.
⊙연락및 문의 : 선미광고 531－6430

대한민국 새마을본부
해외협력부장 최성락
총 · 장 전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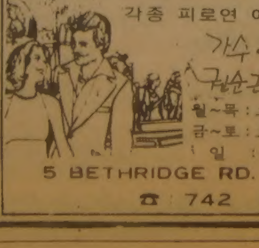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오리엔탈 · 파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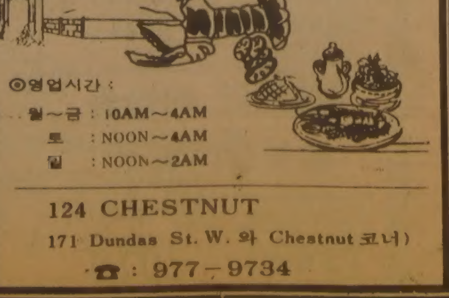
529 BLOOR ST. W. TOR.
533-5545·6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필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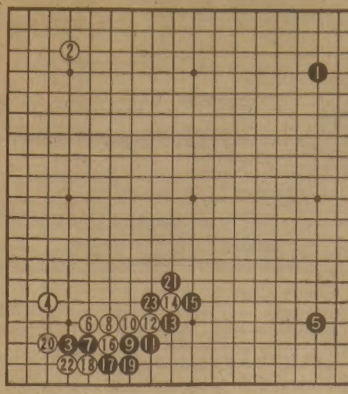
월~목 :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 오전 11시~새벽 2시
일 :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第14기 名人戰

第18局 第1譜 1~23 (各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1勝4敗〉
黑(7段) 徐能旭〈2勝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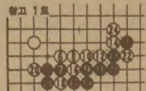
李4단은 시드組에서 이미 탈락한 때문에 부담없이 싸워 좋은 棋譜를 남기면 그만이지만 徐7단(4勝에 승단)은 입장이 좀 아리송하다. 李4단외로 2명이 탈락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3패를 한 기사는 전년도잔류자로 두판을 남긴 河燦錫7단과 한판을 남긴 姜哲民5단, 그리고 금년에 올라와서 1판씩 남긴 盧永夏7단과 徐能旭7단등 4명이나된다. 따라서 徐7단은 이바둑이 지면 河7단, 姜5단등에서 4패자가 2명 생길경우에만 겨우시드組에서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左下의 정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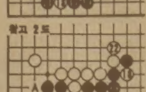
어쨌거나 徐7단은 『이겨놓고볼일』이라며 격의가 대단했다.

白6은 취향. 이하 黑23까지의 변화도 정석의 일종이다. 수순중 24까지 되는것도 기본정석. 단지 黑21을 참고1도의 21로잡고 白18을 참고2도의 18에 먼저 잡고 20에 둔것은 黑21로 잡을때 白22면 1도와 비슷하지만 이경우는 白「A」를 활용한는수가없어져서 黑만 수순이 중요하다는 본기이다. 【一凡】

참고 1도



참고 2도



침묵

길 ◇韓景職◇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심문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마27:12)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53:7) 모두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한 묘사이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침묵을 지키셨다.

웅변은 잠깐이요 침묵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창천무성(蒼天無聲)이라는 말도 있다. 사실 하늘도 침묵을 지킨다. 남에게 오해를 받을때에 구구한 변명보다도 침묵을 지킬 수있다면 그 얼마나 위대한가. 논어(論語) 첫 페이지에 「사람이 몰라 주어도 스스로 노하지 아니하면 이또한 군자가 아닌가」한는 공자님의 말씀도 있다. 더우기 남의 허물에대하여 침묵을 지킬수있다면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珍島 도깨비굿 40년만에 再現

婦女子로구성 厄막는 民俗놀이

피속곳 깃발흔들며 鬼神쫓아내

한동안 중단됐던 珍島의 「도깨비굿」이 40년만에 古老들에 의해 전남珍島郡西外里에서 재현됐다. 說話的인 도깨비굿이 아니라 厄을 막는 功利性을 띤 이 民俗놀이는 7백년동안 전승돼오다가 日帝때 風俗으로 폐허가 되고 산업화에밀려 단절됐다가 처음으로 중앙대 鄭昞浩교수(文化財委員)의 지도로 실연하게된것이다.

당초 도깨비굿은 珍島에 高麗 元宗(7백년) 이래부터 전래된 民俗信仰과 연결된 놀이로 전해지고 있다. 珍島는 예부터 三別抄、東學軍、왜구내습 등 전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도깨비」가 많았고 이로인해 전염병이 나돌아 그 액을 막기위해 도깨비굿이 성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珍島에서는 음력2월초하루를 도깨비날로 정하고 正月대보름날부터 郡內 각마을에서는 부녀자들만이 참가하여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굿을하고 2월 초하루에는 정결한 남자를 뽑아 祭官으로 임명, 이른바 도깨비제사를 드린다. 제사때는 부녀자들이 마을을 돌면서 들어온 도깨비를 가두어 버리는데 농사가 끝난 9월중순에는 다시 도깨비를 풀어준다. 이 굿은 여자들만이 하기때문에 남자들은 절대로 굿을 보아서는 안되며 여자들은 굿을할때 긴장된 마음으로 도깨비를 위협해서 쫓아내야한다. 부녀자들은 무서운 모습의 가면을 얼굴에 쓰고 특히 흥미로운점은 도깨비가 사람의 피 그것도 냄새나는 피를 싫어한다고해서 여자의 피속곳(生理中의피)으로 물들인 깃발을 긴 장대에 매달고다니며 귀신을 몰아낸다.

도깨비굿의 특징은 전남 남해안 지방의 강강술래처럼 부녀자들로만 구성된다. 西外里 부녀자32명과 祭官 2명으로 재현된 이굿은 옛날처럼 마을입구 바위네거리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마을의 古老들이 고증했다.

◇피속곳 깃발을 든 도깨비굿패들이 12접시를 차리고 祭를 지낸다음 제물을 거두고있다.

땅끝에서 오다 〈74〉

식사를 거의 다할때까지 김형사는 텔렉스의 숫자들을 힐끗거리기만 하고 말이 없었다. 그동안 준호는 벌써 맥주 한병을 거의 비워가고 있었다. 카레라이스 한그릇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내프킨으로 입을닦으면서 김형사는 비로소 입을열었다.

『본래 암호는 우리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잘모르겠읍니다만』

전문분야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는척을 하지않으려고 한는것도 그의 특색중의 하나였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에 존재하는 시간과 시간사이의 틈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

『그렇습니다. 여기엔 두개의 틈새가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 세원 부장이 디파처 게이트로 들어간 1월 3일 오후 한시 이전부터 다음 날 12시 35분까지, 그리고 이 텔렉스가 발신된 12시 35분부터 똑 같은 번호의 텔렉스가 발신된 13시 44분까지의 틈새. 이 두개의 틈새가 이 텔렉스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김형사의 지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추리소설께나 많이 읽어온 준호로서도 역시 이론과 경험은 다른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방금 김형사가 지적한 그 두개의 틈새에 대해서 준호는 물론이었고 파리지사에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다. 준호가 치안국장이라면 당장 김형사를 파리로 출장보내서 수사를 시켜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형사에 대한 그의 평가는 식사가 끝난 이후에 더욱 그 강도를 높이게 되었다. 그는 준호가 계산을 하려하자 한사코 못하게 하며 자기가 돈을 치렀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잊지 않고 카운터의 여자에게 부탁하여 영수증을 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가지 좋은 메뉴들을 제쳐놓고 카레라이스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준호는 현관앞까지 김형사를 배웅하였다. 그는 문영식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세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기로 약속하였다.

『필요하시면 리젠트상사에 오셔서 저희 텔렉스를 이용해주십쇼. 리비아의 트리폴리지사로 보내시면 제가 받아 볼 수 있고, 이 쪽에서는 윤종혁이라는 직원과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편리한 세상이군요. 문 영식에게 꼭 전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준호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알리바이의 증인… 그 보이지 않는 사내가 있을것입니다. 김 경사님께서 꼭 그것을 찾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환자는 의사도 살리기 어려운 법이죠』

김형사는 쌀쌀한 겨울바람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張吉山 〈1758〉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8)

『시동아 이를 어쩌려느냐. 지금 시내비를 사람들은 남자면 늙은이고 어린것이고 가릴 것없이 양주로 몰려 들어가야 한다고, 환도를 내놓으라고 법석이다. 사람들은 점점 불어날 것이니 대체 이 사람들을 다 어찌 통솔하나』

시동이가 말하였다.

『염려마라, 많이 모이면 더욱 힘이 커지니까 좋지.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니?』

『사람 구경하러 나가셨단』

『누가 날 찾으면 칠성암 올라갔다고 일러 주어라』

『우리는 어떻게 [illegible]?』

방귀선이 담담하지 자가슴을 두드리며 물었고 시동이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걱정말고, 시내비장어들을 시켜서 느이 아버지나 용남이 아저씨든가 동이 아저씨든 인솔으로 파고들어가서 천변은 이제 조짐이 보인 것이고 앞으로 닷새 안에 반드시 일어나다구 소문을 내어라. 그리고 우리 미륵도의 염불을 가르쳐서 염송을 하도록 시켜란』

그들이 바삐 동네 길로 내려오는데 마침 방외천과 이웅남을 만났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하냐. 어서 군중을 몰아 양주 관아로 가야지』

혈기있는 방외천이 몽둥이로 땅을 쿵쿵 찧으며 말하였다. 시동이는 화를 벌컥 냈다.

『그 몽둥이 치우지 못해. 아직은 엄벌때가 아니야. 군중이 동요하지 않도록 미륵의 도나 일러줄 때란 말야. 설치지 말구 귀선이에게 가서 말을 들어』

정호명과 시동은 대전리의 들판으로 다시 나왔다.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늘어나 있었다. 진 땅에도 앉았고 젖은 풀위에도 앉았으며, 아이들은 소리 지르며 뛰어 다니고 지휘자가 없는 백성들은 이곳 저곳으로 몰리며 소문을 교환하고 있었다. 떠드는 소리, 왁자하는 웃음 소리, 서로 찾고 부르는 소리로 대전리는 장바닥이 되어 버렸다.

시동이와 호명이 칠성암에 당도하니 벌써 법당에는 현당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암자 어귀에는 사람들이 하얗게 몰려서서 그들을 가로막고 섰는 영길이와 이원명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우리두 향도들이우. 좋은 도사님을 만나려는데 왜 막는 거요?』

『천변이 일어나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은 우리 향도들인데 암자에는 어째서 못들어가게하시오!』

그때마다 원명이 작대기로 그들의 가슴을 밀어내며 말하였다.

『지금 상좌들이 논의중이오. 그 다음에는 향도든 누구든 마음대루 들어가슈』

여환은 벌써 아침에 연천서 형례벗때 달려온 오계원과 오경립 형제에게서 근기 일대의 소동을 자세히 들었던 터였다. 정원태도 마련이를 데리고 영평서 당도하였고, 황회도 달려왔다. 정원태와 황회가 말하였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거사일을 당길수 밖에 없소이다. 날짜를 물면 반드시 관가에서 기찰을 할것이오』

『용문을 새로 뚫리는한이 있더라도 온몸내야사이에 발정하지않으면 이번일은 낭패보구맙니다』

성경, 찬송가, 각종 서적. 714 Bloor St. W.
종교서관
성화, 성가테입 각종 설교테입 Tel.: 535-1920

교회안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웅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태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얼 922-0605)	922-3863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나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춘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성경공부 오후1시 대예배 오후1시30분 수요심서공부 오후8시 토요심서공부 오후8시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 1부 오후1:30 주일 2부 오후2:30 금요기도 저녁 9:30 새벽기도 토요6:0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알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3:30 새벽기도 토요일 아침6시 구역예배 금요일 오후7시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생명의 전화) Downsview, M3H 3C3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런던한인천주	김병운		196 Dufferin Ave. London	1-519-673-0037
에드몬톤천주	이요한		9809-76 Ave. Edmonton	1-403-488-5505
몬트리얼천주	김용호			1-514-932-2667
뱅쿠버천주				1-604-435-3069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6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기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건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불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스토아에서 일할 여자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8-8834(커피숍에서 일해본분 우대)

웨이트레스 구함. 한국관
전화 : 536-0290.

학교 옆에 있는 적은 가게 운영하실분.
지하실 2 Bedrooms 입주가능.
전화 : 261-7980

간단한 가사일과 아기 봐주실 분 구함.
Rexdale 지역.
전화 : 741-9443(오후7시이후)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Full Time Helper 구함.
자세한 문의는, 493-2228
491-6773

Store Cashier 구함.
(Full Time 혹은 Part Time)(Eglinton & Dufferin 지역).
전화 : 783-0683

입주하셔서 할머니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7-9911(오후6시 부터 8시사이)

유경험자 Store Helper 구함.
Scarboro 지역 거주하시는 분
전화 : 439-9531

한국요리사와 부엌헬퍼 급구.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음식점 정원 전화 : 1-354-3800, Mr. 리.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입주해서 아기 봐 주실 분 구함.(브램톤지역)
(2살). 월요일~토요일 저녁까지.
전화 : 456-0567, 451-2560, 453-0643

구 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47-9383 (Mrs. 김. 오후6시이후)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매 매

(1) 커피숍 주5일영업. 주매상 $4,000.
(2) 버거데리 Fast Food. 주6일. 주매상 $4,200.
전화 : 977-0578, K. SEE. Realty Inc.

도넛숍 팝니다. Bowmanville
총매상 : $18만~20만/year. 최상의 장소.
좋은 이익. 전화 : 416-433-1451, Mr. Cardenas

Store 팝니다.
주매상 $5,000내외 + Lottario
리스 3년반, 옵션 5년
살림집까지 합쳐서 렌트 $1,100
1093 Woodbine Ave. (직접 내방요망)

2 Convenient Stores for Sale.
Downtown - 1. Whitby - 1
전화 : 282-5498

몰안에 있는 Hot Dog Stand 팝니다.
좋은 장소.
전화 : 826-5942(오후2시~4시), 622-7763(오후5시이후)

버라이어티스토어 급매(2층 APT건물포함). 월이익금 $4,300이상. 아스킹$11만9천 + Stock. $3만9천 Cash 잔금은 Mortgage를 줄수 있음. 주소 : 287 Locke St. South. Hamilton(Locke & Stanley)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직접내방 요망)
가정형편상 급

그로서리스토아와 2 Bedroom 딸린 건물 급매.
Asking 12만불.
433 Pape Ave. Tor.

Convenience Store 급매.
좋은 조건. Downsview 지역.
전화 : (B)630-1252, (R)669-4814.

350 Bed Institution
Owner Must Sell, $399,000

Located 2 Hours West of Metro on 6 1/2 Acres with Main Building & Two 160 Bed Dormers, Complete Full Kitchen, Dining Rm., Seats 200, Full Recreational Facilities, 2 Special Care Ward, Parking for 300 Cars.

Swimming Pool, All Alarm Systems + Many More Extras. All for $399,000. Perfect for Camp, Rest Home or Any Institutional Use.

CALL MR. MADSEN For Full Details.
Re-Max, Richmond Hill Realty Inc.
Realtor, Tel : (416)883-4922

셋압한지 3개월 된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전망 좋음. 현재 주매상 $3,000 개런티.
렌트 $500(5년) + $590(5년).
지하실 포함. 아스킹 : $2만 + 스탁(All Cash원함)
1221 Danforth Ave.

Private : Christie-Barton. 단단한 벽돌집 4-plex.
수입 $12,600 + Owner's 아파트와 차고있음.
아스킹 : $12만9천. 주인직접거래. 전화 : 921-6526.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급매.
○살림집 : 3 Bedrooms. 거실. 부엌. 변소(4 pc)
○가 게 : 년매상 25만불이상. 우체국도 겸함.
Asking 12만불. Howard Moore
(705)325-4448, (705)325-4290
Moore & Lougheed Ltd.

스토어와 하우스-코너 버라이어티. 스토어 벽돌 디태취.
아파트 입구별도. 아스킹 : $124,000.
전화 : 596-8170. Mr. Edmund Tong Trustwell Realty Inc.

턱숍급매. 리스 5년 +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드라이크리닝(Pick Up) Store 급매.
Pikerling지역. 주매상 $1,400.
Rainbow Realty. 전화 : 752-7575

Fast Food Store Salada Sandwich & Soup
$3,500 Weekly(Bloor & Yonge).
Rainbow Realty. Mr.Sotos 752-7575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6,000.
리스(5년 + 5년). Asking : $61,000.
전화 : 1-528-3986. 해밀톤 Mr. 리.

자동차 팝니다. Sale Price $5,000.
닷산 200 SX 80년도형.
전화 : 536-8666

House for sale. Thornhill Area. 1,800 Sq. Ft.
4 Bedrms. Fire Place. Central Air Condition.
Many Extra. Tel : 889-5320

3년된 하우스 팝니다.
타주 이주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팝니다.
가격 : $97,000. 전화 : 499-3764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전망좋은 사진가게 판매
증명사진. 액자. 인화. 현상. 여권사진
전화 : 335-6601(버링톤)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755-0308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FLOWER SHOP. 도넛Shop. 사무실 디자인 등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One Bachelor 지하실 세놓음.
전화 : 762-7958 Mrs. 김.
(아침 8시-10시, 저녁 4시반-10시까지 전화요망)

▲2 Bed Room 살림집 렌트.
다운타운 지역. 7월1일 입주. 월 $400.00
▲방 세놓습니다. Dry하고 깨끗함. (다운타운)
월세 $200.00 533-2363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구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3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페인트(파라, 벤자민무어등)와 벽지취급. 페인트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호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 유홍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센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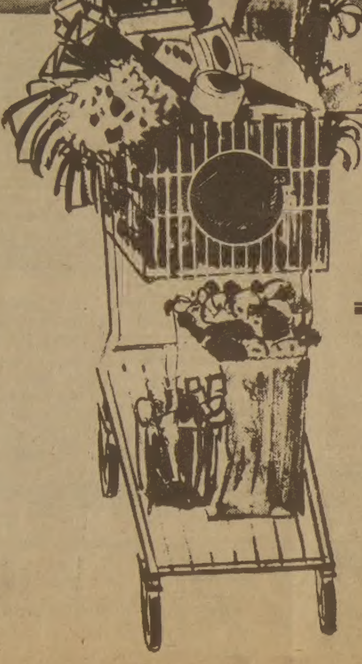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

SUNNYSIDE SUPERMARKET

싱싱한 고향의 맛은
양지식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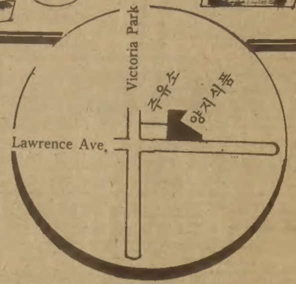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6월 10일(금) 예정대로 개업케 되었아오니 부디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간소하나마 마련된 리셉숀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국태·안경애 올림

□장소 : 양지식품
□리셉숀일시 : 6월 10일(금)
오후 7시부터

6월10일신장개업

양지식품



1738 LAWRENCE AVE. E.
(at Victoria Park)
☎759-9331

제2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 야구 대회

□ 때 : 1983년 7월2일(토) 낮12시
1983년 7월3일(일) 아침9시
□ 곳 : CENTENNIAL PARK 야구장
□종목 : ①어린이부~1971년1월1일이후 출생자
②소 년 부~1969년1월1일이후 출생자
□참가비 : 팀당 $50
출전선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회당일 가지고 올 것.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금) 오후7시(한국일보 본사)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박재선(755-6434)

*공은 소프트볼 사용(11인치)
*투구는 언더드로우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 것임.

주최 토론토 한국일보